

(12) 구미 코오롱 사거리

□ 위치 : 구미공단 입구

□ 역사적 의의 : 노동조합, 노동단체의 주요 선전전 장소,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의 현장



구미 코오롱 사거리(현재)

(13) 구미역 광장

□ 위치 : 구미역 앞

□ 역사적 의의 : 노동자 집회장소.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의 상징적 장소. 1999년에서 2000년 매주 집회 개최



구미역 앞(현재)

(14) 구미 주공사거리

□ 위치 : 오리온 전기 앞

□ 역사적 의의 : 오리온전기 파업 연대투쟁,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의 현장



구미 주공사거리(현재)

6) 첨부자료 목록

(1) 문헌자료

① 자료집 II-①(대구노련,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회의자료 위임)

- (수록자료 순서)
- 대구노동자협의회, 『정책자료집 제1호』, 1989.3.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조직국, 『선봉대』, 1989.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1990.
- 노동열사 최태욱 유가족, 노동열사 최태욱 추모준비위원회, 『노동열사 최태욱 1주기 추도식 및 추모비 제막』, 1991.
- 대구노동자여름수련대회 준비위원회, 『91대구노동자 여름 수련대회』, 1991.
- 노동법개정과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대구노동자 대책회의, 『93대구노동자 여름수련회』, 1993.
- 94대구지역 노동자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의 향한 94대구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1994.
- 『민주노총 대구지역협의회(가칭)추진위 구성을 위한 초동주체 2차모임』 자료집, 1994. 10. 25.
- 대구지역 민주노동조합 총연합 건설추진을 위한 대표추진위원 1차회의 자료집, 1994. 11.9.
- 대구지역 민주노동조합 총연합 건설추진을 위한 대표추진위원 3차회의 자료집, 1994. 12.1.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제5기 7차 운영위원회 자료집, 1994. 10. 25.
- 민주노총건설 추진위원회 3차회의 자료집, 1994. 10. 21.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제5기 8차 운영위원회 자료집, 1994. 12. 2.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제5기 9차 운영위원회 자료집, 1994. 12. 15.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제5기 10차 운영위원회 자료집, 1994. 12. 27.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대구노련 제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1995. 1. 21.
- 대구지역민주노총추진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대구지역 노조간부 수련회』 자료집, 1995. 10. 28~29.
- (주)대구백화점 노동조합, 『승리의 그날을 위해』, 1995. 11.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제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6.1. 24.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규정집』, 1996.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7. 3. 29.

② II-②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8. 3. 4.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1998. 3. 25.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1999. 1. 27.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2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1999. 12. 14.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1. 2. 28.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6년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1. 9. 27.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2. 2. 26.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3. 2. 21.
- ③ 남선물산 노동조합, 『굴뚝의 함성 - 88년 노동조합창립에서 97년 노동조합해산까지』.
- ④ 남선물산 노동조합, 『89임금인상투쟁 1주년 기념 자료집』, 1990.
- ⑤ 기독교대구노동자의집 교육선전부, 『기독교대구노동자의집 소식지』, 1994년 6월호.
- ⑥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터, 『노동하는 인간』, 1994년 12월 제3호.
- ⑦ 대구사회연구소, 대구노동정책연구소, 『대구지역노동조합실태조사보고서』, 1994.
- ⑧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마침내 민주노총, 87에서 95까지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투쟁의 기록』, 1996.
- ⑧ (유인물, 관련 신문기사 묶음)
- (주) 태화염공 노동조합, 『투쟁속보』, 1989. 7. 8.
 - 염색노동조합임금인상공동대책위원회, 『89임금인상 완전쟁취를 위한 염색노동자총단 결대회 결의문』, 1989. 4. 6.
 - 대한방직 해고노동자 일동, 『억새풀』, 1989. 4. 21.
 - 대구·경북노동조합연합준비위원회, 『대구·경북노동조합연합소식 특보』, 1989. 2. 3.
 - 대하통상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새벽함성』, 1989. 2. 14.
 - 동양어패럴(주)노동조합, 동양방제공업사 노동조합, 『돌아라, 미싱아!』, 1989. 4. 13.
 - 대구노동자협의회, 『대노협 결성 선언문』, 1988. 8. 15.
 - 대구노동자협의회, 『대구노동자신문』 창간호, 1988. 10. 27.
 - 남선물산노동조합 비산, 이현 임투위원회, 『투쟁소식』, 1989. 3. 23.
 - 섬유해고자실천위원회, 『베를소리』, 1989. 3. 10.
 - 매일신문, 1978. 1. 24.자(아리아악기 관련기사)
1984. 5. 25.자(5. 25. 대구택시기사파업사건)
1989. 2. 11.자(대구노동청첩거농성사건)
1989. 2. 13.자(대구노동청앞 시위사건)
1990. 7. 5.자(남선물산 굴뚝농성사건)

(2) 인터뷰 녹취자료(CD)

- 김찬수 / 이병수 (대구노동자협의회, 2004. 2. 9. 녹음)
- 정우달(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2004. 2. 9. 녹음)
- 배태선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사무국장, 2004. 5.19. 녹음)

7) 참고 문헌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제3권, 대구시, 1995.
 사회운동연구소 편집부, 『사회운동1』, 사회운동연구소, 1989.
 이준성, 「선배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 전국금속노련 교육국, 2001.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1985.
 민주노총 포항시협, 「포항민주노조운동 10년사」, 포항시협, 1997.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1970-2000』, 현장에서 미래를, 2002.
 대구노동자협의회, 「정책자료집」제1호, 1993.
 매일신문, 1978. 1. 24.자(아리아악기 관련기사)
 1984. 5. 25.자(5. 25. 대구택시기사파업사건)
 1989. 2. 11.자(대구노동청점거농성사건)
 1989. 2. 13.자(대구노동청앞 시위사건)
 1990. 7. 5.자 (남선물산 굴뚝농성사건)

3.

농민

1) 개요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농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흐름을 요약, 정리하고 관련사건, 단체, 유적지에 관해 기록한 기초조사 작업이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일제하 반외세 자주독립운동과 해방이후 통일독립 정부수립운동,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운동, 민생민권운동 그리고 근래의 신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운동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진보와 민주·민권·민생을 도모하는 지역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을 비롯한 각계, 각층, 각당의 자생적 저항과 목적의식적 운동은 지역운동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은 한국사회 자본주의의 성장 확대와 더불어 지역 사회운동의 주축세력으로서 성장해왔다.

해방이후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국내 정치적 상황과 농민운동의 성장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해방이후 1970년대 말까지 :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前史
- ② 1980년부터 1987년까지 :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모색기
- ③ 1988년부터 1990년까지 :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본격적인 성장기
- ④ 1990년부터 현재 : 전농 경북도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지역농민회 농민운동으로의 전환기

해당 시기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 농민들이 전개한 농민운동 전반, 즉 조직적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비조직적 농민들의 집단적 활동까지 포괄할 것이다.

2)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사 시기별 개괄

(1) 해방이후 1970년대 말까지 :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前史

① 객관적 정세

일제시대의 활발한 소작쟁의 전개, 해방직후의 활발한 토지개혁투쟁과 공출반대투쟁,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계급적 농민운동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5년에 조직된 <전국농민조합 총연맹>이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농민운동 조직이 해체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마저도 완전히 고갈되고 말았다. 그 결과 농민운동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침체기로 들어간다. 1950년대 농촌은 미국잉여농산물의 과다 도입에 의한 곡가 하락, 임시토지수득세 등에 의한 조세수탈과 잡부금 각출 등으로 대단히 빈곤하였고, 춘궁농가가 절반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으로만 본다면, 농민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지주소작관계 등 농촌내의 직접적 대립관계가 해소되었고,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조건이 있었으며, 주체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농민운동을 추진할 선진적 주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농민운동이 출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무엇보다 절실하던 경제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까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급속한 공업화, 즉 「수출주도 공업화정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대규모 차관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통한 원조와 차관으로 연결되었으며, 결국 이를 통해 기술과 금융의 두 측면에서 종속의 첫 단추가 채워지기 시작하였다.⁵⁰⁾ 이러한 수출지향적인 공업화전략은 마침내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한국사회를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공업중심의 사회로 이행시켰다. 말하자면 경공업 중심에다 두고 중화학 공업을 약간 가미한 '기계제 대공업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산업화 과정은 토착적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생산관계에 있어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를 확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값싼 농업노동력과 저임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저농산물 가격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농업생산력조차도 전반적으로 낮고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더구나 벼농사조차도 다비농법의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농업 노동수단의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농기구가 지배적이었고, 기껏해야 양수기와 수동식방제기가 조금 보급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60년대 생산력 정체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새로운 생력기계 도입을 통한 비약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이 아직 요원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전반에는 식량자급과 농업발전을 내세우는 중농주의 정책이 농민들을 유혹하였다. 이른바 정부주도로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1961년 5월)과 농업은행과 농협을 정비해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의 건설이⁵¹⁾ 추진되었고, 전체농지의 6%에 달한

50) 박현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와 농업·농민문제」,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1, 연구사, 1988, 42쪽.

51) 박현채, 「농민에 의한 농협운동」, 『한국농업의 구상』, 한길사, 1981.

개간사업과 협업농을 육성하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⁵²⁾ 그러나 이러한 1960년대 전반기의 농업정책은 농촌의 자금수요에 비해 정부의 공급용이 크게 부족하여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에서부터,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지원이 거의 없었던 협업농육성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그 한계를 명확하게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봉적인 중농정책들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 속에 매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식량자급이라는 농정목표마저 변질된 채 값싼 잉여농산물 도입만 계속되었다. 미공법 480호에 의해 계속 무상으로 도입되던 잉여농산물조차도 1967년부터 유상의 장기차관 방식으로 변하였고, 계속된 저미가정책도 쌀의 소비만을 부추겨 부족한 외화를 쌀수입으로 낭비하였다. 확대된 도농간의 격차는 또다시 급속한 이농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1960년대 말의 연이은 삼남지방 대한밭은 이를 크게 촉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과잉인구의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머슴, 빈농들이 도시 빈민촌을 형성하고 무허가주택의 철거를 반대하는 빈민폭동의 잠재적인 주요 구성원이 되었던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농민운동 형태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4월 혁명 이전에도 맹아적인 형태의 농민운동으로 간주될만한 농촌운동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른바 1948년 8월에 창립한 <대한독립 농민총연맹>이라는⁵³⁾ 농민단체가 1952년에는 <대한농민회>로 개칭하였으나 유명무실하였고, 1950년 이후부터 여러 차례 농업협동조합운동이 있었지만 내외적인 한계 때문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농촌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관심은 오로지 농업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만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조직인 <자원지도자 연합회>가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탄생하였던 것이다.

순수한 민간단체들로서는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1964년 4월 1일 설립)와 <농촌문화연구회>(1954년 설립)가 있었다. 전자는 독농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전국농업기술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후자는 독자적인 농민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농촌문화』라는 잡지까지 간행하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농민운동 단체적 성격을 갖지는 못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비롯하여 대전의 '복지농로원', '기독교 연합봉사회', 캐나다 선교회의 '이리농장', 충북괴산의 '육우개발협회', 감리교계통의 '양곡은행', YMCA의 '농촌개발사업' 그리고 천주교 원주교구의 '농촌개발사업' 등 많은 기관이 있었지만 그들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아직도 농민운동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⁵⁴⁾

이러한 상황은 4월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4월 혁명 직후 일부사람들이 <대한농민회>를 복원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층의 비호를 받아 단지 조직을 복원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 농민대중과 더불어 밑에서부터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농민의 자생적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비록 농민운동 단체로 발전하

52) 박진도, 「8.15 이후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1, 연구사, 1988, 233쪽.

53) 해방정국에서 '전국농민조합 총연맹'의 타도를 주목적으로 한 우익진영의 농민단체임.(이우재, 「4월혁명과 농민운동」,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1991, 180쪽)

54)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1991, 230쪽

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그러한 성격을 갖고 조직된 것은 4월 혁명 직후 신중목이 조직한 <한국 농민 자립총연맹>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는 <한국농민회>란 단체도 만들어졌으나, 이것마저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심지어 당시 가장 활발했던 <4-H구락부>운동의 그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자원지도자연합회>의 일부도 농민단체를 결성하려 시도하였으나 좌절되었다.⁵⁵⁾ 이처럼 이 단계에서는 '밑으로부터' 농민 스스로의 운동을 통해 농민단체를 키워나가기보다, '위로부터' 정치권력에 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더불어 이 시기에 가톨릭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농촌운동을 시도하고 있었다.⁵⁶⁾ 1964년 10월 산업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평의회는 조직 내에 농촌청년부를 만들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 후 이 조직은 1966년 10월에 <한국가톨릭 농촌청년회>라는 보다 적극적인 농촌청년운동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 조직은 가톨릭 교회본당을 기초로 한 <분회>와 교구단위의 조직인 <교구연합회> 그리고 전국단위 조직인 <전국연합회>의 3단계로 조직을 정리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가톨릭농촌청년회>의 목표는 '사회선교를 위한 농촌청년들의 종교적 공동체 건설'에 두었으므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도 철저히 가톨릭교회가 주도했다.

이 맹아적인 운동은 양돈·양계조합 결성을 통한 '생산협동사업',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사업' 및 '농업기술 교육' 등의 체제 내적인 사업에만 집중하였다. 실제로 이 운동은 경북 왜관에 있는 성베네딕트 수도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구미지역에서 야학, 양계, 신허, 협업농장 및 양돈사업 등을 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농촌청년들을 크리스천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생활과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었고, 그 교육내용도 신앙, 협동, 기술에만 머물러 있었다.⁵⁷⁾ 이처럼 이들은 경제개발 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급격히 몰락하고 있었던 농민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농민 스스로의 협동과 기술교육'이란 내적 정미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었지만 그 활동이 분절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여전히 농업문제를 농민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초보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4월 혁명 이후 여기저기서 나타난 1960년대의 맹아적인 농민운동들은 농업·농민 문제를 농민대중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전혀 행하지 못했다. 소위 정책비판이나 권익보호 운동을 위한 조직기반을 밑으로부터 만들어나가기보다 오히려 권력의 비호아래 조직을 만들려고 했을 뿐 아니라, 농업문제를 단순히 농업내부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촌지도사업, 농업기술 보급 및 농민교육이라는 기술적 차원의 농촌활동만으로는 새로운 농민운동의 출현을 예고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농업희생적인 경제개발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농민운동이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주체적인 역량의 결여 때문에 본격적인 농민운동이 출현하지 못했던 것이

55) 이우재, '4월혁명과 농민운동', 181-183쪽.

56)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25년약사', 『1990년도 제20차 대의원대회 자료집』, 1990.

57) 이태일, '현대한국농민의 계급형성과 계급운동(1964-1990)', 『한국자본주의와 농촌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1.

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쟁이후 모든 사회운동을 불온시하는 맥카시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농민운동이 아직은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1950년대 중반부터 출발한 농촌지도사업이 정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던 사정도 이 시대의 농민운동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그들 나름의 주체성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증유의 불황⁵⁸⁾에 직면한 한국 자본주의는 기존의 외자도입 방식에 직접투자를 가미하여 외채위기를 완화시키면서 중화학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정부는 1972년에 이르러 유신체제란 강력한 종속적 파시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위기가 몰고 올 정치위기를 서둘러 극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화학 공업화의 길로 들어서기에 앞서 정부는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의 일정한 응급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개발 초기에 이미 '식량의 자급'이라는 처음의 바른 목표를 '주곡의 자급'이라는 기만적인 목표로 서둘러 바꾼 바 있는 정부는, 이에 즈음하여 '신품종 도입을 통한 강제 증산정책'을 실시하였다.⁵⁹⁾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쌀을 거의 자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닐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농업 및 멀칭재배' 등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 외에 다수확 품종의 재배확대가 가져온 녹색혁명은 빈농층의 자가식량 확보와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의 쌀값보장 및 수매정책은 1960년대 말에 크게 악화되었던 농가경제를 부분적이나마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벌어졌던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이 시대에 있어 농업생산력의 개선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농업·농촌정책으로는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유신체제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계층 가운데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농민층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융합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세를 올리고 있던 독점자본의 순조로운 축적을 보장해 주기위한 농민동원 정책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배경은 '고도성장의 한계', 자본의 대항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성장', 그리고 농업소득의 정체에 따른 도시빈민 누적이 빚은 '사회적 위기'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주로 근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이 본래부터 안고 있었던 독점자본과 농민간의 모순은 유신체제에 의한 온갖 이데올로기적인 눈가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농민 스스로에 의한 농민운동'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유신체제의 가장 충실한 기반이었던 농민대중은 이제 독점자본의 주요한 체제 저항세력으로써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유신정권의 뜻과는 달리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자신들의 문제를 보다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입각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운동 조직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의 농민운동이 1960년대 공업화 전략이 낳은 심각한 후유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내외독점자본에 의한 위로부터의 공업화는 농업으로 하여금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원, 그리고 값싼 농산물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만 강요할 뿐이었다. 그에 따른 농가경제의 악화와 대규모적 이농은 도시빈민 문제를 낳았고, 마침내 1971년에는 서울주

58) 김재훈, '공황론에서 본 1969-72년의 한국경제', 『현대한국자본주의의 전개』, 경제사회학 정기학술대회, 1990. 12.

59) 박홍진, '농업생산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1, 연구사, 1988.

변에 위치한 광주 대단지 도시빈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반적인 '농업희생 정책의 전개'란 모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농민운동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재촉한 것은 4·19혁명 이후 여러 민족·민주세력이 지속적으로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었다는 사실과,⁶⁰⁾ 농민대중들도 그들의 빈곤이 단순한 기술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란 점을 깨닫고 농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입각하여 1972년 4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가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편됨으로서 비로소 사회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이 출범하게 되었다.⁶¹⁾ 특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기존의 활동만으로 농업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농업농촌문제와 가톨릭 농촌활동'을 주제로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가톨릭농민 국제연맹>에도 가입하여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농업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가톨릭농민회>는 '농민권익의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이제 점차 본격적인 운동단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이러한 <가톨릭농민회>의 새로운 활동은 1973년 남한강 일대의 홍수피해를 구호하기 위한 가톨릭 원주교구의 '재해대책사업' 등을 통한 농민 스스로에 의한 민주적-협동적 농촌개발사업의 경험들이 축적된 데서 비롯되었다.⁶²⁾ 그리고 1974년 11월부터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농민교육 프로그램'⁶³⁾과 <YMCA 연맹>의 '농촌개발사업'⁶⁴⁾이 추진되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농민교육은 독일 기독교 원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농촌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 농민교육은 정치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로 발전하려면 '각종의 압력집단이 압력과 화해의 기능을 제대로 행해야만 한다'고 전제한 뒤,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농민의 민주적 정치역량이 육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로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74년 11월부터 1979년 3월까지 무려 21기에 걸쳐 약 800명의 우수한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후속교육을 포함한 수많은 교육활동을 통해 1970년대 농민운동의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공급하였다. 특히 교육생의 약 절반정도가 <가톨릭농민회>의 핵심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교육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YMCA연맹>도 '농촌신용협동조합' 운동과 '부락개발사업'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초보적인 의식화에 기여하였다.

기독교를 믿는 일부의 농민들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나 <기독교청년협의회> 교육의 영향을 받아, 1978년 3월에 <전남 기독교농민회>를 설립함으로써 기독교 농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들은 이후(1982년 3월) <한국 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라는 전국적인 농민운동 조직을 갖추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농민운동이 농민들의 주체적 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종교단체란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농민 스스로의 주체적인 역량이 미약했기

60) 장상환, '한국농민문제의 본질과 농민운동', 『한국사회의 이해』, 한울, 1990, 290쪽.

61) 한국가톨릭 농민회, '한국가톨릭 농민회 25년 약사', 『1990년도 제20차 대의원대회 자료집』, 1990, 46쪽.

62)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1991, 216쪽.

63) 이우재,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아카데미 농민운동',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1991.

64) 대한YMCA연맹, 'YMCA와 농민운동', 『농민문제와 농민운동』, 1988, 116-118쪽.

때문이었다. 이른바 종교단체는 농민운동가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지원해주었다. 그렇지만 농민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직노선이 여전히 확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농민운동은 종교단체라는 외피 속에서 소수의 의식화된 농민들의 운동에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농민대중의 자주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소수 운동가들의 '해결사적 운동'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농민운동은 농촌현실로부터 자연발생적인 문제제기와 농민교육을 통한 이론적인 접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1970년대 농민운동의 주요투쟁은 관료주의의 횡포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였다.⁶⁵⁾ 대표적인 예로는 출자를 독려하기 위해 비료를 사거나 영농자금을 대출받을 때 반드시 일정금액을 출자하도록 강요한 단위농협에 대한 '농협 강제출자 거부운동'과 '농협민주화운동'이며, '을류농지세 부당과세', '강제경작', '새마을사업 강제집행', '산림법 위반에 대한 행정정보', '경지정리에서의 부당시공', '추곡수매 때의 검사부정' 등의 문제들 역시 관료들의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보상투쟁이었다.⁶⁶⁾

마을단위의 운동으로서는 개별 분산적 경제활동을 협동조직체를 통해 생산·유통·신용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활동이 조직되었다.⁶⁷⁾ 이러한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직화 사업으로서는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업기계 협동반을 조직하는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농산물의 공동판매나 농업자재의 공동구매사업은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아직 마을단위의 협동사업보다는 소그룹형태가 가톨릭농민회 분회조직이나 학습회 형태로 운용되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전국단위의 운동으로서는 '농지임차 관계 실태조사', '쌀을 위시한 보리, 담배, 고추, 옥수수의 생산비 조사'가 대표적이었으나,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였다. 이외에도 '농민의식 조사', '갑류농지세 실태조사', '노풍피해 실태조사' 등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 대구·경북 농민운동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농민운동 사례는 안동교구에서 씨감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민회원인 오원춘씨를 납치, 테러한 데 대한 대대적인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경제투쟁의 단계를 넘어선 농민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정치투쟁이었지만, 투쟁의 주된 주체는 농민보다는 가톨릭의 성직자와 농민신도들이었고 운동의 성격도 농민탄압에 대한 저항이기보다는 인권 및 종교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더욱 짙게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농민운동은 그 불모의 땅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농민운동은 양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농민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의 농민운동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외피 속에서만 전개되었으며, 그나마 운동자금은 외국 기독교기관의 원조금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70년대 농민운동은 농민들의 주체적 역량의 미숙 때문에 농민운동 자체가 자주적 대중노선을 추구할 수 없었으며, 소수의 의식화된 농민운동가들의 '해결사적 운동'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지역의 범위를 넘는 전국단위의 공동의 목표를 갖는 농민운동이 조직

65)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한울, 1991, 239-247쪽.

66) 장상환, '한국농민문제의 본질과 농민운동', 한울, 1990, 292쪽.

67)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248-252쪽.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⁶⁸⁾

농민운동의 과제설정에 있어서도 현장중심의 지역단위 운동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농협의 민주화'나 '농산물제값받기' 등에 전국의 운동역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다. 더구나 농지 문제를 주요문제로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운동과 연대하는데 있어서도 그 취약성을 여지없이 노출하였다. 투쟁방법조차도 대체로 진정서, 건의서, 이의서를 제출하여 청원하거나, 더 나아가면 기도회, 농성 등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당사자인 농민대중들이 주체가 된 대중투쟁보다는 조직의 간부나 신부, 목사들이 중심이 되는 투쟁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이 시대의 농민운동은 운동의 주체역량부족이라는 초기조건을 아직 극복할 수 없었다.

② 1970년대까지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흐름

1960년대 중반부터 농민들은 점차 스스로의 권익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1960년대 이후 농민운동의 재조직화가 시작되었는데, 1964년 10월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농촌청년부>를 결성하고, 그 이듬해인 1965년에 <농촌청년부>는 경북 구미를 근거로 전국의 주요한 농촌지역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농촌청년 운동을 소개하는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한 부서에 불과하던 <농촌청년부>가 새로운 농민운동 조직인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로 분리되면서 경북 구미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렇게 독자적인 틀을 갖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분회>, <교구연합회>, <전국연합회>라는 전국적인 조직 틀을 갖추고 <한국가톨릭농민회>라는 전문적인 '농민운동체'로 성장하였다.⁶⁹⁾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76년 4월에 인준된 이후, 대구·경북 농민운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안동교구>가 1977년 4월 30일에 교구 사무국 내에 처음으로 <농민사무부>를 설치하였다. 이 <농민사무부>는 공소 주변의 33개 마을 실태조사를 마친 후, 그 중에서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지 '농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도자 연수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그 회원과 조직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을 시작하였다.⁷⁰⁾

새로이 출범한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초창기의 산고(産苦)를 겪는 와중에서, 대구·경북지역은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77년에 그 지부인 <대구교구 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이어 1978년 12월에는 <안동교구 연합회>가 전국에서 열 번째로 결성되었다. 이와 같은 <안동가톨릭농민회>의 순조로운 출범은 안동교구 농민사무부의 활발한 활동들⁷¹⁾ 때문이다.

68) 이우재, '19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122쪽; 장상환, '한국농민문제의 본질과 농민운동', 292쪽.

69) 한국가톨릭 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25년 약사', 「1990년도 제 20차 대의원 대회 자료집」, 1990.

70) 천주교 안동교구사무부 농촌개발사무부, '제1차조사보고서', 1977. 5.

71) 안동교구의 농민사무부에서는 19개 분당, 27개 공소,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1977년에 제1차 '부락(공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농촌사회의 구체적 복음화, 농민의 인간적 성장과 권익향상 운동을 겨냥하는 농민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였다. 이들은 이를 통하여 공소라는 자연부락의 단위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1978년은 물가폭등과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확대, 그리고 주택개량 등의 온갖 전시행정과 증산강제 등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했던 때였다. 여기에서 혹심한 가뭄까지 겹쳐 농가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상황 속에서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과 '강제행정 철폐'를 투쟁목표로 내걸고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던 1970년대의 후반의 농업정책 목표는 바로 '주곡자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었으며, 모든 농정은 농업의 생산과 기술부문에만 집중되었고, 지나친 실적주의에 집착한 강제농정이 일반화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대구·경북지역 농민들은 대략 다음과 반농민적인 행정에 직면해 있었다. 이른바, 신품종 벼 강제권장, 일반벼 재배 방해, 초가지붕 강제철거, 주택개량 강요, 경지정리 및 객토사업 강제, 하곡·추곡수매량 제한과 수매 부정, 하천사용료 부당징수, 부실 경지정리 피해, 울류농지세 부당징수,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 등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 역시 관료주의적 횡포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인 농민권의 실천운동의 와중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주요 당면과제로 부상한 것은 부당한 농업세제와 농협의 비료구입시 출자금 강제징수, 신품종벼와 경지정리의 강제, 수세 및 울류농지세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따라 경북 의성군 다인면(상광), 신평면(쌍호), 예천군(축동), 그리고 영양군(청기) 등에서 '벼품종선택권쟁취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의성군 신평면(쌍호)에서는 부당한 수세를 시정하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 시기 <안동가톨릭농민회>의 주요활동은 주로 '농협민주화'와 '울류농지세 부당징수' 등에 집중되었으며, 당시 경북북부지역 농민운동의 가장 큰 성과였던 '청기 감자피해보상 활동'도 이 시기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9년 5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 보상 활동에 앞장섰던 <안동가톨릭농민회>의 정기분회장 오원춘이 납치·감금·테러를 당하는 일명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은 <안동가톨릭농민회> 및 <안동교구> 사제를 통해 전국으로 폭로되었다. 곧이어 신부와 농민회 간부들의 구속사태, 대통령의 특별조사령, 공안당국의 사실 왜곡, 그리고 농민회와 교회에 대한 탄압 등의 과정을 거쳐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었다.⁷²⁾

교회에 대한 정부·언론의 대대적인 음해가 가해졌었던 일명 <안동농민회 사건>은 비록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을 질적으로 크게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체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대구·경북지역의 농민들은 서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자생적 힘을 조직화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동농민회 사건>에 대한 <안동가톨릭농민회>의 조직적 대응방식은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보다는 종교탄압에 대한 대응이란 성격을 질게 먼 한계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그러한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은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준법 투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점적으로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72) 안동교구 사제단, '안동교구 사태에 관한 보고서', 1979. 7.

(2) 1980년부터 1986년까지 : 대구·경북 지역 농민운동의 모색기

① 객관적 정세

1970년대 말 한국자본주의는 임금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적인 중화학 공업부문에의 과잉투자로 제2차 석유파동과 맞물림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 1979년부터 수출이 감소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상승과 통화량 팽창 등에 의해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정부는 저임금구조를 회복하여 축적기반을 안정화시키려고, 중화학 공업부문의 투자조정과 강력한 임금과 농산물가격의 통제에 기초한 경제안정화정책에 주력하였다. 1979년 4월에 마련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수출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농정 정책이었다. 이 가운데 18개 농산품에 대하여 가격안정대를 운용하고, 8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비축제를 실시하는 정책은 농산물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 단적인 예로서 1979년의 농산물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52.3%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값싼 임금의 기반'이자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던 독점자본의 농업에 대한 태도가 표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농업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임금상승에 대한 압박까지 가중시키는 '자본축적의 주요한 장애요인'이라 지목함으로써 수입개방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점자본을 위해 안정적 축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크게 성공하였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구조가 유지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이종곡가제가 포기되고 추곡수매가 인상은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아래 동결되었으며, 조급이라도 부족기미를 보이는 농산물은 즉각 해외에서 수입해 들이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제 쌀값지지 후퇴가 빚은 농가소득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복합영농'이 권장되고,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사업이 서둘러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수입된 농산품들은 그 대부분이 콩, 밀, 옥수수 등의 사료용 곡물이었으며, 1980년에는 냉해에 의한 대흉작으로 엄청난 양의 쌀이 도입되었다. 또 물가안정을 이유로 8개 주요 비축품목의 수입도 계속 이루어졌다. 특히 쇠고기의 지나친 수입은 복합영농 정책과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1985년 '소값 파동과 소몰이 시위'를 초래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를 맞아 농민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더욱 새롭게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개방농정의 전개로 나타난 독점자본의 농업지배가 더욱 극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농업피폐와 농민빈곤이 이 시대 농민운동의 객관적 조건을 이루었다.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많은 농민활동가들이 농민운동을 보다 명확히 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인식, 실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은 자주적 농민운동의 보다 적극적인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도 그들의 빈곤이 잘못된 공업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때문이므로 단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낮은 차원에서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 독점자본에 의한 신식민지적 자본축적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적인 조직편성 때문에 허약한 현장지도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가톨릭농민회>는 조직력의 현장집중을 통하여 조직기반과 지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군(郡)

을 기초단위로 하는 새로운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교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직기반을 교회 속에 뿌리내리려 하였다. 그렇지만 <가톨릭농민회>가 주도한 농민운동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외부의존성'이나 '투쟁에서의 대항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종교적 이념에 의지한 운동지도'란 문제점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었던 농민운동 자체의 한계였다. 이러한 사정은 1982년 3월에 <한국 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가 전국적인 조직체제로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하였다. <기독교농민회>조차도 '기독교를 믿는 농민들을 농민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건설한다'는 것 외에는 전혀 자주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기독교농민회>는 군단위의 농민조직을 결성하면서 마을단위의 품앗이, 경로잔치, 학습회 등을 강화하거나, 전국적인 농민운동의 투쟁성을 회복하려 하였다.

<가톨릭농민회>가 주도하였던 1983년의 '농협조합장 직선제 쟁취투쟁'은 협동조합 원칙을 무시한 채 조합장까지 정부로부터 임명받는 비민주적인 기구로 전락하여,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기까지 하는 관제농협을 민주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농협은 강제출자 강요, 선이자 떼기, 재벌 상품 농민에게 비싸게 팔기, 집권당 표 모아주기 등의 낯 뜨거운 일조차 서슴치 않는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때문에 마을과 장터를 막론하고 서명운동은 농민대중의 호응으로 급속하게 늘어났고, 이를 방해하려는 온갖 탄압조치 농민들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를 당해내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열기 속에서 소수 정예의 투쟁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투쟁하며 과거와 달리 종교적 외피를 벗어 던진, 이른바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새로운 농민운동이 처음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미 개방농정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이 정책이 주요한 투쟁대상으로 부상된 것은 1984년 이후부터였다. 이제 농민들은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자란 당연한 역할조차 부정당한 채, 오로지 값싼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순용되기만을 강요받았다. 외국 농산물의 대규모적인 수입은 저임금 구조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돼지, 소 등 거의 대부분의 농축산물 가격을 주기적으로 폭락시켰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일으켰던 대표적인 투쟁으로서는 '전두환 방일반대 및 농가부채 탕감'을 요구하였던 함평·무안 농민대회(1984년 9월 2일), 전국 농촌에서 연인원 2만여 농민들이 격렬하게 벌였던 '소몰이 시위'(1985년 7월), 그리고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1986년 9월)와 '농가부채 해결투쟁'(1986년 11월) 등이다. 이제 농민대회에서도 정권을 반대하는 구호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농민 운동가들도 점차 교회라는 종교적 외피를 벗어나 대중들이 모이는 장터와 거리에서 자주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부터 농민운동은 자신들의 기본 생활권이자 지방권력의 핵인 군을 단위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4년 9월 2일 함평·무안지역 농민들이 '농가부채 탕감과 전두환 방일반대'를 구호로 내걸고, 양파에 대한 지나친 농지세와 농축산물 수입을 철회하고 생고구마 전량수매와 쌀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면서 함평 장터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그 단초였다. 이제 교회를 활용하지 않아도 군단위 현장조직이 독자적인 운동단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요구와 정치적인 구호를 함께 내건 최초의 농민운동이 출현한 것이다. 그

결과 전남 함평군에서는 독자적인 농민조직인 <함평농우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함평·무안 농민대회에서 처음 나타난 농축산물 수입저지 요구는 1985년이 되자 더욱 뚜렷한 농민운동의 목표로 부상하였다. 이미 쇠고기를 위시한 350여 품목의 농축산물이 무차별하게 수입되어 소 값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양축농가가 입은 피해는 무려 2조원을 넘을 정도로 엄청났다. 그리하여 1985년 벽두부터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도입우(導入牛)피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 규탄대회'(1985년 4월 22일)가 일어났다. 같은 해 7월에는 불과 두 달 동안 전국 20여개 군에서 무려 2만여 명의 농민이 소를 몰고 장터를 도는 '소몰이투쟁'이 거대하게 펼쳐졌다. 이 새로운 방식은 7월 1에 경남 고성에서 처음 출현한 이래, 전·남북, 경북, 충·남북, 강원도의 각 지방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는데, 특히 경북북부 전역에서는 소몰이 시위, 경운기 시위, 국도차단, 장터장악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더욱이 이 싸움은 종래와 같은 소수정예 중심에서 점차 일반 농민대중이 참여하는, 그리고 생산조직과 연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 해 9월의 '전국농민대회'(전주)와 '소값 피해보상 투쟁'(서울)으로 결산된 이 싸움은 새로운 자주적 농민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 투쟁은 생활현장에서의 대중투쟁, 농민회와 생산조직의 연대투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에 기초한 농민의 정치투쟁방법 제시란 점에서 농민운동사에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무엇보다도 분출하는 대중의 분노를 낚은 종교적 농민운동 조직에만 가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일회성으로 끝남으로서, 대중에게 투쟁대상을 보다 명확히 알려 전국적인 싸움으로 이를 견인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소몰이 투쟁의 결과 농축산물 수입저지와 농가부채 해결을 목표로 한 여러 형태의 <투쟁위원회>가 지역 및 전국을 단위로 각각 결성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조직이 대중투쟁보다는 소수에 의한 선도투쟁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농민회원은 아니지만 당면문제에 이해를 같이하는 농민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 투쟁조직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쟁위원회들이 주도해낸 싸움으로는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1986년 9월 1일),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신민당사 농성'(1986년 12월 29일) 등이 대표적이다. 1986년에는 수입개방 저지투쟁이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가톨릭농민회>는 이를 위해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미대사관을 향해 가두행진을 개시하였다. 또한 <농가부채해결 전국농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기독교농민회>의 '농가부채 탕감투쟁'은 신민당사 농성에 이어져, 마침내 1987년 대통령선거 때의 가장 주요한 논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렇지만 적어도 1986년까지의 농민투쟁은 '소몰이투쟁'으로 처음 드러난 대중의 높은 투쟁열기를 새로운 조직으로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한 활동가들의 선도투쟁으로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변모한 농민운동은 이제 농촌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직의 기본단위를 <군농민회>란 틀로 자리 잡게 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그 결과 취약했던 농촌현장의 하부조직이 1986년경에 이르르면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수많은 <군농민회> 조직으로 보강되었다. 이는 곧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른바 '농민의 농민에 의한 새로운 농민운동'이 시작되려는 주요한 징후였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대중들의 뜨거운 열기를 종교우산하의 선도적 활동

가가 이끄는 경직적인 기존조직으로는 제대로 수용해낼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내부체질을 개선하면서 군단위의 주체적 농민조직을 건설하지는 소극적인 체질개선론과 교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농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농민운동 중심을 세우자는 자주적 대중조직 건설론이 각각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2월에 이르러 '분과주의', '조직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자주적 대중노선을 주장하는 여러 군단위 농민조직들이 모여 마침내 <전국농민협회>를 창립하게 된다. 이제 농민 스스로의 주체적인 역량을 모아 농민운동의 외부 의존성과 지역조직의 고립분산성이란 자기한계를 극복하려는 보다 발전된 농민운동 단체가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② 1986년까지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흐름

1980년대의 농업정책으로 대표되는 것은 제4차 경제개발 계획(1977~1981)에서 제시된 「농어촌 경제의 구조적 개선」이었다. 따라서 쌀의 자급유지와 양곡수입을 통한 식량공급의 안정과 농외소득원 개발,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등의 정책들이 추구되었다. 뒤이어 실시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에서는 농업구조의 개선과 경제성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 확대, 신축적인 수입을 통한 식품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표방하였다.

식량증산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중점시책들은 지대별 적품종의 보급, 전필지의 적기 모내기, 병충해의 사전 박멸, 발작물의 증산, 그리고 농토의 종합개량 등이었다. 이에 따라 다수성인 통일계 품종이 1971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1981년부터는 '농토종합배양 10개년 사업'을 수립하여 객토·유기질비료 증시 등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먼저 1980년대 초에는 독점자본을 위한 안정적 축적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이 더욱 노골화 되어 비교우위가 없는 농산물이 조금만 부족하면 즉각 수입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개방농정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1983년부터 도입된 '복합영농'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사업은 주곡 외에 축산·경제작물 등의 수익성 작목을 결합한 영농 유형을 지역에 맞게 개발하려는 것이었다. 1983년에 대구·경북지역의 복합영농사업에서는 24개군 38단지, 152마을에서 2,660농가가 참여하였다.⁷³⁾ 그 외에 복합영농의 보완작목으로 입식된 축우는 번식우 2,700두, 도입육우 1,487두, 젖소 33두 등 모두 4,220두였는데, 여기에 정부는 축산자금 등을 지원하였다.⁷⁴⁾

이처럼 1980년대 전반의 농정은 '증산정책의 지속과 물가안정 명목의 수입개방 정책,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복합영농과 농촌공업화 정책'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대구·경북지역 농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그에 따라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대전(1983)과 경북 의성군 다인면(1984)에서 잇따라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쌀수매가 동결 등의 반농민적인 농업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농정에 좌절하였던 농민들은 이제 이러한 문제제기를

73) 경상북도, 도정백서, 1983, 295~299쪽.

74) 1983년에 경북도에서 복합영농사업의 명목으로 농가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3,379백만이었으며, 그 중 축산자금은 2,534백만 원이었다. 이는 곧 농가호당 평균 127만원의 규모였다(경상북도, 도정백서, 1983).

통해 피폐한 농업과 농가경제를 스스로 일으키겠다는 강한 자구의식을 바탕으로 해마다 농민대회를 통해 반농민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스스로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1982년에 '농협민주화'나 '농업세계 시정활동' 등의 중요한 운동과제를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활권이나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지역의 운동권이 차츰 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의 농민운동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업·농민의 문제가 독점자본과 이를 비호하고 있는 독재정권, 그리고 신식민지 정책을 강요하는 외세 등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전반기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주력 활동상황은 농민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현장 활동이었다. 이러한 현장 활동은 생산과 생활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농민운동의 현장인 부락단위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현장 활동의 목적은 농민들의 일상적 요구와 생활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며, 아울러 농민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는 것에 있었다. 현장 활동의 중심내용은 경제적 협동, 부락민주화 활동 및 권익실천 그리고 문화·봉사활동이었다.

첫째, 경제적 협동 활동은 개별 분산적인 영세소농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노동과정을 협동화하여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우선 부락민의 생활주변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하여, 생산력을 높이면서 생산과 소비주체로서의 농민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적·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취지였다. 1980년대에 실시되기 시작한 경제적 협동 활동은 신용협동·구관협동·이용협동·생산협동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이 활동과정에서, 특히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주로 신용협동 조합(마을금고) 또는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협동 활동을 벌였는데, 이 활동은 1980년도에 가장 활발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관협동의 주요 내용은 비료·농약 공동구매 및 구관장 운영을 통한 생필품 구입 등이었다. 구관협동은 영농경비 절감 및 농협관계 개선 등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 생산물의 직거래라는 형태의 발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용활동 역시 간단한 농기구(경운기, 탈곡기 등)를 공동 이용하는데 그쳤을 뿐 별다른 조직적 활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는 그 활동의 범위가 몇 개의 분회에만 한정되었을 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둘째, 부락민주화 활동과 권익실천 활동은 농촌 내부에 존재하는 봉건잔재와 비민주성, 비합리성을 없애고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곧 마을을 민주화하지는 운동이었다. 1980년대 초반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은 농촌사회 민주화와 마을 공동체 강화를 활동목표로 삼아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부락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 중에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협조합장 직선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와 조합원 교육실시' 촉구, 그리고 '총대의원 선출의 민주화' 등의 농협 바로잡기 운동에 참여하여, 각종의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발한 권익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성군 다인 협의회와 영양군 청기분회는 각각 농지개량조합비 현물납부와 을류농지세 부당과세 문제를 각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진보분회는 경지정리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며, 특히 영양군 청기분회, 창리분회, 풍천협의회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농협의 비료출고료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의성군 신평면 쌍호지역은 민주적인 동장선출에 성공함으로써 부락회의를 민주화하였고, 신품종벼 강제권장 막기, 부당수세 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1984년 11월에 의성군 다인성당에서 <대구교구 연합회>와 공동 개최한 <추수감사제 및 경북 농민대회>는 농민문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기도 했던 1980년대 초반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중요한 결과였다.

1980년대 전반기 농민권의 침해유형은 주로 '신품종의 강제권장'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수확량의 통계수치를 늘리려는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되고 있었다. 1981년 구들방 분회에서는 '논갈이 강요'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 역시 농토종합배양 10개년 사업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농약강매, 규산질비료 강매, 을류 농지세 과다부과, 그리고 수세문제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1982년 예천군 풍양지역에서는 마을동장이 냉해피해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권의 실천 활동은 물론 농민에게 직접 이익을 부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농민들에게 경찰·행정기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와 성취감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이처럼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은 농민회의 역량에 맞는 일감부터 해결해 나감으로써 점차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셋째, 문화·봉사활동의 목적은 농민노래 보급, 성경 연구, 마을 율놀이, 마을 야유회, 농민 사랑방, 그리고 농악놀이 등을 통해 생산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농민의식과 공동체적 일체감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더불어 소비성향을 조정하는 자본의 침략으로부터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직접 생산자 농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음으로써 농민적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화·봉사활동은 고달픈 농촌사회에 즐거움을 주고, 가정문제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게 만듦으로써 동지적인 결속을 고양시켰다. 그 주요활동은 율놀이, 풍물놀이, 경로잔치, 공동세배, 부락축제, 성지순례, 마을 야유회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전체 부락민에게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심고 농촌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해 온 이러한 활동들은 장차 군협의회의 결성과 학습회 강화 등으로 투쟁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은 각종 농민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장 활동과 더불어 1980년대 전반기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주력했던 주요활동은 <한국가톨릭농민회>와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통한 전국적 과제 활동이었다.

첫째, 쌀생산비 조사에서 시작된 쌀생산비 보상운동이었다. 1975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에서 처음 실시한 쌀생산비 조사활동은 최초의 농산물 생산비조사였고, 이는 각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쌀생산비 보상운동은 농민의 생산비 의식을 높였다. 특히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쌀생산비 조사원 교육, 현장교육, 지도자 연수 등 각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회원들이 직접 조사한 쌀생산비의 조사결과를 여론화하였다. 쌀생산비는 저농산물 가격정책 문제와 함께 농민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생산비 추정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수매정책을 비판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전국 쌀생산자 대회'를 개최하여 농산물 가격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경북지역 농민대회'는 쌀생산비 보장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하였으며, 1982년의 '경북 상주군 합창대회'에서는 농업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하였고, 1983년 '경북 의성군 다인대회'에서는 농협민주화를 결의하고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요구하였다. 1984년 경북 의성군 다인본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제 및 경북 농민대회'는 1,100명이 넘는 농민들이 참석하여, 외국 농산물을 메고 시가행진을 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주장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후 이 운동은 외국농산물 수입반대를 여론화하고 농자재가격 인하를 여론화하며, 정부의 수매정책을 건의하는 등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자재의 가격과 공산품 가격의 인하운동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것까지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둘째, 1981년부터 농민운동의 주요과제로 나타났던 농업세계 시정활동은 농지세·수세 등 부당한 세제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세법 바로 알기 학습과 울류농지세 작물(고추, 마늘) 생산비 조사, 이의신청 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82년에 경북 의성군 상광분회에서 부당수세 거부운동이 가장 먼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성군 다인지역에서는 농지개량 조합비 현물 납부운동도 전개되어 의성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현물로 납부할 것에 동의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영양군 청기분회 등에서는 울류농지세 문제와 관련해서 농지세의 필요성비 산출의 문제와 재해농가에게 감면혜택의 부여에 인식하였던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민운동의 양상은 <안동가톨릭농민회>가 경북북부지역 농민운동의 대상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업세계 시정활동은 <가톨릭농민회>가 현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과제였으나, 자체교육을 행한 의성군 쌍호, 영양군 청기, 안동군 갈전·진전·협심지역 외에는 회원중심의 활동에 그쳐 여론조성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세계교육과 여론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회원중심의 교육과 자료보급이라는 한계에 머물렀다.

셋째, 1980년대의 농협민주화운동은 1970년대식의 사안별 시정운동에서 벗어나, 농민회원들이 이사·감사·총대 등을 맡아 농협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을 민주화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안동가톨릭농민회>중심으로 실시한 농협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협관계 학습회 실시, 단협 총대회 자료의 실태 파악, 총대의 민주기능 회복, 조합장 선거제 실시와 그 민주적 운영, 농협 임원의 민주적 기능 회복 등이다. 특히 1982년에는 조합 민주화를 위한 집중지역을 설정하고 현장 활동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의성군 쌍호, 예천군 축동·구들방 분회, 상조분회에서 총대회에 진출했으며 감사와 이사 등의 임원을 맡기도 하였다. 조합장 선출에도 계획적으로 참여하여 총대회의 활성화와 농민회 활동에 대한 선전효과를 거두었다. 안동군 청기분회의 고추수매 부정 진상규명과 상광분회의 부당수세 거부 등 조합원

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도 아울러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전반기 농협민주화운동 중에서 가장 성과가 컸던 비료 출고료 시정 투쟁의 가장 큰 의의는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적절한 과제를 선택·해결함으로써 농민회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농민회가 좋은 단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은 경북북부지역, 즉 풍천협의회, 의성읍, 안동군 청기분회, 점촌군 창리분회, 구천분회, 예천군 축동분회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⁷⁵⁾

이제 1980년대 전반기에서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의 주요 활동 영역은 농민 생존권 투쟁으로 이행해간다. 사실 1980년대 이후 개방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확대 정책은 농민들의 수입저지 투쟁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수입개방 등으로 저하된 농업소득을 커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1983년부터 추진된 복합영농 정책은 결국 거듭된 과채류의 가격파동과 1985년의 미국소 대량도입이 빚은 소파동 때문에 파산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1986년부터 소입식이 중단되었으며, 1987년부터는 돼지 입식뿐만 아니라 단지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도 복합영농 대상작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복합영농 사업은 생산의 무정부성이 빚은 수급의 불균형과 확대된 수입개방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농가부채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무려 350여 가지의 외국 농축산물을 수입하였는데, 그 중에서 소는 18만 마리, 쇠고기 2억 4천 5백만 근을 수입하였다.⁷⁶⁾ 이로 인하여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3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반농민적인 농정에 대해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농민운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⁷⁷⁾하였다. "오늘날 농민운동은 농민만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고 민족자립경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이루려는 반외세 반독재 운동이요,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인간화 운동이다."

<안동가톨릭농민회>는 1986년 4월에 <농가부채 탕감대회>를 열고 안동역까지 가두진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의 주된 구호는 '농가부채 탕감',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민주농정 쟁취', 그리고 '군부독재 타도' 등이었는데, 이는 분명히 종전의 운동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른바, 이 시기 농민운동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독재정권과 외세에 맞서는 '민중의 생존권적 투쟁'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었다. 이 시기에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어난 농민생존권 쟁취 운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5년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경북 의성군 다인 협의회의 소값 폭락에 따른 '소값피해 보상활동'이었다. 소사육 농가의 피해는 1984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피해의 주원인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소의 파다 도입이었다. 소사육으로 생산비 조차 건지지 못하였음을 깨달은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문제는 마침내 <가톨릭농민회>의

75) 1984년 4월 10일 풍천단위 농협의 회신에 의하면 83년도 출고료 총액은 763647원인데 위촉구매 비료 수익계정으로 처리되어 간접적으로 조합원에 환원되었고, 앞으로는 농민이 직접 출고할 때는 정해진 금액(포당 11원 45전)에 직접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풍천단위농협' 공문, 풍천 제 35호, 1984).

76)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노동자 농민을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 보고서', 1986. 4.

77)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85년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대회사', 1985.

전국적인 과제로 선택되기에 이른다. 소값 피해보상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운동은 1984년 6월 25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산하 <제천지역협의회>가 수입소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천군수에게 보내고,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공개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이 운동은 1985년 경남 고성 의 '소몰이 시위'를 매개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처음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는데, 다만 의성군 <다인협의회> 산하의 풍양분회에서 이에 대한 피해조사가 실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5년 하반기에 타지역 활동에 자극을 받아 <다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의성군 신평면 쌍호 및 월소분회와 합동으로 소값피해 보상과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비록 100여명의 회원농민이 9마리의 소와 11대의 경운기를 동원한 것에 불과하였지만, '소값피해 보상하라',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하라' 등의 구호는 당시 경북북부지역 농민들의 강력한 자기선언이었던 셈이었다. 이 운동에서 <안동가톨릭농민회>는 한편으로 분명한 피해와 시의 적절한 문제를 가지고 농민운동을 선도함으로써 그 역량을 과시하였고, 지역운동의 중요성과 농민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운동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왔던 여성농민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이 운동에서 지역농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타지역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둘째, 1986년에 이르러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저곡가 정책과 한미통상협상이 결과한 양담배 수입 때문에 담배생산 농가의 위협이 가중되었다. 이미 기록적인 농가부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었던 지역농민들이 벌인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와 농가부채 해결,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 쟁취 등이었다. 농민운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가톨릭농민회>는 각 지구별로 지도 신부단을 결성하고, 곧바로 실천 활동에 필요한 교육사업과 농가부채 피해 실태조사서의 작성에 들어갔다. 이후 안동군 풍천협의회에서는 구담백사장에서 약 5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안동가톨릭농민회>는 1986년 4월 16일 안동문화회관에서 약 700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농민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안동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수녀들까지 최초로 시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1986년 9월 1일에는 의성군 안계면과 안동군 풍천면, 영양읍 등에서 '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도 150여명의 농민들이 경운기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쟁취', '지방자치체 실현' 등의 구호는 참여한 농민들의 자신감 및 고양된 정치의식을 보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하여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조직 확대라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적지 않은 농가부채 피해조사 결과를 농민운동으로 적절하게 연결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대회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인 영양·봉화·청송·예천 등의

담배 주생산지 지역의 농민들이 양담배 도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자연 발생적인 투쟁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한 것도 <안동가톨릭농민회>의 역량부족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고추싸움 발생하기 직전인 1988년도 전반까지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수입 농산물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나, 기존의 조직형태를 탈피하여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를 위한 기구(78) 결성하여 투쟁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 지역농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보다 철저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 농민운동의 중대한 성과였다.

(3) 1987년부터 1989년까지 :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본격적인 성장기

① 객관적 정세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8월의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3대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회출현은 여러모로 개방농정에 대한 전면적인 농민투쟁을 크게 고양시킬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세계적으로 농산물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기 위한 무역협상을 실시하자고 합의한 뒤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가트(GATT)를 내세워 농산물 수입을 전면 자유화할 것을 목표로 한 다자간협상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한 엄청난 양의 수입농산물을 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젊고 유능한 농민들이 떠나버린 텅 빈 농촌에는 골프장을 위시한 관광단지나 농공단지가 하나 둘 들어서는 노골적인 농업포기 정책이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6월 민중항쟁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시군지역 반독재투쟁을 시발로 하여, 각 지역마다 수세투쟁,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 의료보험투쟁, 농축산물 수입저지 투쟁 등의 형태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에 들어와 농민운동은 완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대중조직, 대중투쟁노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었다. 88년 한 해 동안 무려 300여회의 투쟁에 연인원 20여만 명이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투쟁의 형식도 대부분 소극적인 집회의 수준을 넘어서서 시위·농성 등의 적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 결과 88년은 농민운동 역사상 최대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수세투쟁'은 관제조직인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비라는 명목의 수세를 지나치게 고율(300평당 15,000원)로 부과한데서 비롯되었다. 저수지는 농민부담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간접자본은 국가가 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오직 이것만 정부보조보다 농민부담으로 운영하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거부운동이었다. 1985년경부터 조금씩 펼쳐져 오던 이 운동은 1987년 11~12월 사이에 이르면 해남 및 나주지역 '수세폐지대회'에 무려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수세를 거부하고 납부고지서를 불태우는 대규모 투쟁으로 폭발하였다. 1988년에는 전·남북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전국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 이 해 9월 14일에는 <전국수세폐지 대책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수세폐지·농지개량조합해체·수리청 신설이라는

78) <안동가톨릭농민회>는 1986년 8월 29일에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안동농민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투쟁방향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가열찬 투쟁은 수세를 300평당 벼 5kg으로 인하하고, 농조조합장 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수세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물을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처음의 경제적인 요구에서 출발하여 농민의 정치참여라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둘째, '농산물제값받기투쟁'이 고추싸움을 통해 거대하게 펼쳐졌다. 1988년 7월부터 1근당 2,500원하던 고추가격이 800원대로 폭락하였는데, 이는 양담배 수입 때문에 엽연초 농가가 고추생산으로 전업한데다, 지나치게 좋은 기후로 인해 고추가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추 값이 폭락하자, 특히 고추생산액이 농업조수입의 60~70%를 차지하였던 경북북부지역 농민들은 당연히 생존을 위해 '고추제값받기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8월 19일 영양장터에서 있는 소규모 항의집회를 계기로 고추의 주산지였던 경북북부지역인 영양·봉화·청송·안동지역의 농민들이 고추 값 보장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처음 80명 정도의 농민이 장터에서 펼친 이 투쟁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순식간에 그 규모는 2천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농협과 군청을 점거하고 진압경찰과 투석전까지 벌였으며, 심지어 봉화에서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철도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군·면단위로 자발적인 농민대회가 산발적으로 열리다가, 마침내 10월 2일에는 오랜 준비 끝에 '안동시군 농민대회'로 이들의 열기가 결집되었다. 약 3천명의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군수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그 열기를 몰아 군청을 점거하였다. 군청을 점거한 농민들은 직접 군행정 사무를 보겠다며 군수와 각 읍·면장을 즉석에서 뽑았으며, 경찰과의 몇 차례 공방전 끝에 시위대는 한때 6천명까지 불어나기도 하였다. 성당으로 철거한 농민들은 농성을 계속하면서, 다음 농민대회를 준비하였다. 이 농성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안동지역 공동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농민운동 단체들 외에도 이 지역의 택시노조, 병원노조, 교사협의회,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10월 12일의 경북북부지역 농민대회에서도 처음 시작한 200명가량의 농민대열이 곧 5천명으로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해 당국은 대규모의 경찰병력과 그리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진압을 시도하였다. 이후 '고추싸움'은 경북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북과 전·남북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 투쟁양상도 고추를 관계기관에 떠맡겨 농가부채를 현물로 상환하자는 운동으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경북 북부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고추싸움은 이 단계의 대중적인 농민운동 가운데서 가장 격렬했던 것이었지만, 아직 이를 기반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는 상승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모든 지역사회의 통제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통제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농협은 투쟁의 와중에서도 고추수매량을 늘여 농민들의 불만을 흡수해 버렸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경북 북부지역에 새로운 자주적 대중조직이 정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셋째, 오래 전부터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농촌의료보험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 1988년부터 겨우 실시되었다. 그러나 농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보험료 부담뿐 아니라, 보험료를 내더라도 1차와 2차의 진료기관이 나누어지고 마땅한 병원마저 부족하여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적인 의료보험을 거부하는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충북 영동 등 9개 지역에서는 '부당의료보험 거부대회'가 벌어지고 보험료 불납이 결의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16일에 있는 농어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기초로 <전국 의료보험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10월 8일에는 '국민 의료보장법 채택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성과물로서 1989년 2월의 임시국회에서는 농민들의 여망이 담긴 국민의료보험법이 채택되었으나, 이것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농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의료보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전국적인 파업으로까지 번졌지만, 대중투쟁으로의 확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끝으로, 대통령선거 때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약되었던 미국 쇠고기가 마구 수입되기 시작하자, 전국의 양축 농가들은 수입저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각 지역의 낙우회가 쇠고기 수입반대 유인물을 살포하였고, 1988년 12월 30일에는 광화문에서 민정당사까지 천명의 낙농농가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1월에는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2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청소재지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또 1988년 4월 22일에는 모든 농민단체와 육우협회가 건국대에서 '수입개방반대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5월 26일과 7월 18-19일에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수입반대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또한 11월 17일에는 농업생산자 단체와 농민운동 단체들이 모두 모여 결성한 <농업생산자단체협의회>가 주도하는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고추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가 성대하게 열려 농협중앙회를 점거하고 수입개방 저지운동에의 동참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결국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 1989년 2월 13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였다. 전국 60여개 군에서 온 2만여 농민들은 이 대회에서 부당수세 폐지 및 적립금 반환, 농지개량 조합해체 및 수리청 신설, 남북 농산물직거래 즉각 수락, 고추전량 수매, 통합 의료보험제 실시, 농축산물 수입개방 중단 등을 실현하기 위한 4당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하게 시위하였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그간 대중적인 농민운동으로 나타난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결집하여 터뜨림으로서 농민운동의 존재를 마음껏 과시하였던 것이다.

1989년에 들어와 농민운동은 초기에는 2월 13일 여의도광장의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 수매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전국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정부는 대회주도자들을 구속하거나 수배했지만 여론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수세를 단보 당 5kg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의료보장투쟁에서도 1989년 2월 임시국회를 맞아 공화당 및 야3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 국민을 단일체제로 묶는 통합일원화방식의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공안정국의 전개 등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 위축되어 농민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1989년 4월 8일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조치 이후의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해 <전국농민운동연합>은 4월 21일 농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범농민적 연대를 통해 수입저지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대책위원회 준비

위>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가 주최한 11월 28일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에는 7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1989년 하반기에 농민운동이 부진하게 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안정국으로 민족민주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농민운동조직이 <전국농민운동연합>과 <전국농민협회>로 분립되어 통일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그러나 연말에 들어와 쌀값 폭락, 돼지값 폭락 등 위기적 사태를 맞이하여 현장 조직들의 요구에 의해서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1월 15일에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전국 70여개 군에서 1만여 명이 서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동했으나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한 탄압으로 7천여 명은 서울진입이 저지되고 3천여 명이 서울에 진입, 이 가운데 1천여 명이 건국대 대회장에 참석하였다. 1989년 쌀값투쟁은 과거의 성명서 등을 통한 선언적인 입장표명 대신 농민운동단체의 주도로 농민대중이 조직적으로 쌀 투쟁을 벌인 최초의 운동으로서 쌀값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을 농민들에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1988년 대중투쟁과 대중조직의 발전에 따라 농민운동조직의 통일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이제 농민운동은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그 방법도 청원수준에서 거부투쟁으로, 준법에서 합법성 쟁취로, 일회성 투쟁에서 장기성 투쟁으로, 소수 활동가 중심에서 대중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 단계에서 농민대중의 자주적 운동조직의 전국적인 결집체로서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로 1987년 2월에 결성된 <전국농민협회>였다. 이 협회는 '보다 분명한 농민적 입장의 철저한 지향과 주체적 의지의 결단으로써 그 동안의 농민단체의 비농민적 성격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의함으로써 보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민운동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성과에 발맞추어 농민운동의 흩어진 조직을 통일해야한다는 강력한 압력이 참여농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농민운동 조직은 여전히 기존의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를 위시하여 새로이 결성된 <전국농민협회>, 그리고 어떠한 전국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주적 농민회>들로 농민조직들이 나뉘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낙후된 상황은 농민운동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사업의 중복과 조직 간의 소모적 갈등으로 운동역량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조직통일의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몇몇 선구적인 지역에 서부터 계통을 달리하는 여러 조직을 하나로 묶어 통일된 군단위 조직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농민들의 노력이 전국수준의 조직통일 논의를 더 한층 자극하였지만, 아직도 그러한 당위와 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요구는 1989년 3월에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가 결합한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건설되는 것으로 일단 귀착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국농민협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그리고 어떠한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주적 농민회>들 사이에서 조직통일의 논의가 완결됨으로써, 통일된 농민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현한 것은 개방농정이 이미 농업포기적인 구조조정 농정으로 크게 발전한 1990년 4월 24일이었다.

②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흐름

1987년 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는 양담배·쇠고기 등의 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해 정부는 국내 앞담배 종자에 대한 공급제한을 실시하였다. 양담배 수입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해 많은 앞담배 농가들이 고추생산으로 돌아섬으로써 발생한 고추의 과잉생산은 고추 값을 생산비의 3분의 1선 이하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고추가 농가수입의 60~70%를 차지하던 경북북부지역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당연한 생존권적 요구로서 '고추 제값받기 투쟁'을 자주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도 대선 이후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을 준비하였는데, 이 운동은 1988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추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확산은 이 지역의 농민운동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8년 8월 19일 경북 영양지역의 고추 값 폭락에 대한 항의집회로부터 촉발된 '고추투쟁'은 경북북부지역인 봉화·청송·안동·예천·의성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전북과 전남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이처럼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었던 고추투쟁은 전국적 농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경북 영양지역의 고추투쟁은 곧바로 주변지역인 봉화·청송·안동 등으로 확산되면서 고추투쟁의 기폭제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추가 주요작물이었던 봉화군에서도 1988년 8월 20일에 <봉화군농민회 결성 추진위원회>⁷⁹⁾ 만들어져서 고추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추·담배·사과를 주로 재배 하였던 청송군에서도 담배경작이 제한된 후 고추경작이 더욱 증가하였다. 청송군의 농민회 조직 상황을 살펴보면, 1983년에 창립된 진보면 <광덕농민회>가 꾸준히 활동을 하는 가운데, <안덕면농민회>(1988년 7월 29일, 회원 50명), <현서면농민회>(1988년 10월 11일, 회원 80명), 그리고 <현동면농민회>(1988년 10월 25일)가 일시에 창립되어 활발한 고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청송군에서의 농민운동은 각 면을 중심으로 전개된 농협부채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안동군의 고추투쟁은 길안면과 풍천면에서 시작되어 '안동시군 농민대회'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곳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농민대회가 열렸으며, 영양·청송·의성·상주·봉화군 농민들이 모두 참석하는 '경북지역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88년 11월에 <안동농민회 결성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면농민회 및 군농민회 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예천군에서도 <안동가톨릭농민회>는 풍양면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벌여 왔는데, 1987년 4월에는 <예천군농민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안동가톨릭농민회>와 <예천군농민회>는 '농산물 제값받기 예천군 대회'를 1988년 10월에 개최하여 고추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하였다. 그 외에 의성군의 농민운동 조직으로서 서부지역에서 <안동가톨릭농민회 의성협의회>산하에 6개의 지부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년도 후반의 '고추 제값받기 대투쟁'은 경북북부지역 농민운동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일대 사건이었다. 이 투쟁의 폭발적 전개는 농민대중을 정치적으로

79) 봉화군에도 이미 안동가능 산하의 구천분회, 봉화분회, 계산분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들은 농민대중과는 분리된 채 자체적인 교육과 상호유대를 통하여 조직만 유지만 해 오던 형편이었다.

각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활동가를 훈련시켜 농민운동의 공간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고추투쟁은 기존의 수동적, 사업주의적, 일회적 성격의 운동방식을 극복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고추투쟁의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수많은 대중조직이 여기저기서 건설되었다. 특히 농민운동 조직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자주적인 대중운동 조직이 활발히 건설되어 연대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농산물 제값받기 경상북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추 제값받기 투쟁'은 그 성격상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고추투쟁의 진원지가 바로 그 농민운동의 무대였던 경북북부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가톨릭농민회>는 그 투쟁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뒤이은 투쟁지역에 그들의 투쟁의 경험을 충분히 전달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충분히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안동가톨릭농민회>가 중심이 된 고추투쟁은 1980년대 후반기 농민운동사에서 가장 고양되었던 농민투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마침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주적인 대중조직이 정착되는 역사적 계기를 이루었다.

(4) 1990년부터 현재 : 전농 경북도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지역농민회 농민운동으로의 전환기

① 객관적 정세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농업은 개방농정에 지쳐 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농업구조 조정'이라는 1990년대의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이 나타났다. 새로운 농업정책은 전체산업의 구조조정이 지향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기 위해, 비효율적이라 지칭되는 국내농업을 과감히 도태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강제로 실현시킨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농업에서 불필요해진 농업노동력을 기술훈련과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공업노동력으로 전환시키며, 농지이용체계도 필요한 농업진흥구역만을 불모로 한 채 나머지는 공장부지와 주택지의 구입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이처럼 개방만을 강제해오던 내외독점자본의 압력은 마침내 1989년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전면적인 농업재편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집약되고,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0년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내세워 개방 불가피론을 강요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구도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른바 절대다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9~91년 동안 243개 농축산물이 개방되었고, 1992~94년 동안 131개 농축산물이 개방되었으며, 그리고 1995~97년 동안에 나머지 142개 품목까지 모두 개방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60% 내외였던 수입자유화율이 1991년에는 84.7%가 되고, 1997년

에 이르러 마침내 100%를 서둘러 달성했던 것이다.

1990년대의 특징은 미국의 개방 압력에 편승한 독점자본이 농업유지가 자본축적에 제약임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농업구조의 근본적 재편성을 적극적으로 강제해나간다는 점이다. 이제 개방을 전기로 하여 취약한 국내농업을 근본부터 구조 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실제로는 농업포기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한국 자본주의 축적구조의 새로운 변화는 1990년대 이르러 지금껏 농업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근본부터 부정하면서 농업의 재편과 포기를 위해 새로운 구조조정 농정을 출현시켰다. 마침내 이는 농업생산을 위축시키고 생산력 발전을 왜곡하며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심지어 농업구조 해체와 농업포기로 까지 이어짐으로서 농민운동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종교적 외피를 벗고 자주적 대중노선을 확립한 농민운동은 1990년에 이르러 조직통일을 달성함으로써 고삐 풀린 소처럼 내달리는 개방농정과 구조조정 농정에 대해 농민의 단결된 힘으로 재갈을 채울 수 있는 투쟁의 구심이 만들어졌다. 농민들은 이러한 조직통일이 곧 우루과이 협상과 농어촌발전대책을 통해 농업해체와 농민말살을 꾀하는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신식민지 농정'에 따라 농민생존의 총체적 위기가 심화되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90년 '창립 직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반대투쟁과 쌀수매가 인상 및 전량수매투쟁을 전개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0년 상반기를 조직정비 작업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거부 및 농산물제값받기 투쟁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이 예상보다 더욱 급속하였을 뿐 아니라, 저농산물 가격 및 제한수매정책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정치·경제적 고통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여 전면적인 투쟁으로 이끌 주체적 힘이 아직은 미흡하였다. 그 때문에 조직역량의 체계적 정비와 구체적인 지도방침 수립을 포괄하는 실천적인 종합대안 마련과 여기에 대한 전체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90년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통한 전국적인 도농학연대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분쇄, 제값받기 쟁취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9월 7일부터 세 차례(9월 7일, 9월 22일, 11월 12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그리고 <UR농산물협상거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서울·전남북·충북 등지에서 결성하여 농민문제를 범국민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출범 이후 최대의 농민집회라 평가되는 이 세 차례의 행사에서 농민·학생·시민들은 당국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평화적 집회와 가두시위를 펼치며, 미국과 독점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농민적인 행위를 격렬히 규탄하였다. 여기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매우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 기회를 틈타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곡수매가 책정에 인색함을 전혀 감추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농업보호를 위해 쌀, 쇠고기 등의 15개 품목을 절대로 수입개방 하지 않는다는 비교역품목(NTC)으로 지정하여 성년 농민들을 무마해 나갔다.

그러나 1991년으로 들어서면서 수입개방 반대운동은 이제 쌀시장개방 반대라는 슬로건으로 집중되었다.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박수길 제네바 협상대표와 이봉서 상공장관의 연이은 발언(4월 25일자)과 더불어,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기가 정부와 집권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리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핑계로 극도로 위축된 추곡수매는 지금까지 냉담하던 농협과 농촌의 말단행정 담당자들마저 반발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91년 10월 26일 전국 90개의 시·군에서 2만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하는 추수총파업과 농민대회 및 시위를 단행하여 농업 정시정책과 홀대에 대한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의 합성을 더 높였다.

1990~1991년에 걸쳐서 농민운동은 민족민주세력의 전국적 단결과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련의 활동을 벌였다. 1990년 4월 21일의 <민자당 일당독재와 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 국민연합> 결성에 중요부문으로 참여했고, 4월 29일 연세대에서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 참가했다. 5월 9일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국민대회는 87개 도시 30만 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전민중의 항쟁이었고, <전국농민회총연맹>도 63개 군에서 3,0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91년 12월 1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결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농민회는 농촌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민주적 조직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운동은 UR협상거부 및 UR이행특별법 조기실시 등 UR협상반대 및 대투쟁을 벌임과 동시에 쌀수매가 인상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93년 2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쌀수입 저지 전국농민대회'에는 <한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7,000여명이 참석했다. 7월 10일 명동성당에서 1,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클린턴 방한 반대 및 신농정 전면수정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7일에는 서울역에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려 3만여 명의 농민과 시민이 참가했다.

1994년 2월 1일 농민들은 'UR 재협상 쟁취, 국회비준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만이 아니라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농어민후계자연협회> 등 여타 단체들도 참여한 범농민적 투쟁으로서 전후 최대의 농민상경투쟁이었다. 대학로에서 개최되었던 대회에는 농민 2만2천명과 시민학생 1만3천명 등 총 3만5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4월 9일에는 'UR 재협상 촉구 및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전국 각 시·도 별로 동시에 개최했다. 전국 11개 도시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정부의 굴욕적인 수정계획서 제출과 미국의 패권적 개방 압력을 규탄하였다. 6월 20일에는 'UR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11월 29일에는 '쌀 생산비 보장과 WTO 비준반대 94 농민대회'가 보라매공원에서 10개 농민단체 주최로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행사 후에 여의도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하였다. 12월 2일에는 전농대표단이 김영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방문했으나 청와대 정문 앞 도로에서 전농 의장 등 38명이 강제로 연행되기도 했다.

1995년 4월 23일 'WTO 이행 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료보험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2,000여 농민이 모인 가운데 열렸고, 4월 24일에는 '지방화시대 농정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농 창립 5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농민의 지방농정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1996년에 들어서서는 국제적 식량난 사태를 배경으로 쌀 자급과 수입쌀 저지투쟁, 직접직불제도 쟁취, 농산물 제값받기 투쟁을 꾸준히 전개했다. 2월 1일 '의료보험통합, 쌀자급과 직접직불제도 쟁취 및 농산물 제값받기 96 전국농민대회'가 농민 6,000여명, 시민학생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었다. 12월 13일에는 '쌀 수매가 인상과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제2차 전국농민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다. 경찰은 지역에서 상경하는 농민들을 통제이트 등에서 차단하고 대회장으로 향하던 버스를 제지했으나 농민 8,0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7년에는 9월 5일부터 22일 사이에 소값 폭락 규탄, 농산물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농민대회를 열었다.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전국 각지 3만여 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농축산물가격 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성립된 IMF 관리체제 하에서 농업, 농가경제는 농자재가격 상승, 농산물가격 폭락, 농가부채 상환불능 등으로 공황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농업공황 상태 하에서 농민운동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에 따른 농업공황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전개된 1998년의 농민운동은 첫째 농가부채해결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였으며, 둘째 농정개혁투쟁이 상층교섭 위주로 진행되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꾸준한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위상이 높아졌고, 현장조직도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 1999년에 들어와 IMF 관리체제가 깊어지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정부여당과 민주농민운동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해에는 첫째 협동조합 개혁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둘째 관변농민단체와 자주적 농민운동조직간의 차별화가 분명해졌으며, 셋째 진보적 시민운동 및 민주운동조직과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농민운동은 '농가부채탕감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가 정기국회 회기 내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1월 21일에는 전국 120여 시군에서 5만여 명의 농민들이 '농촌회생 촉구를 위한 100만 농민총궐기대회'를 열고 고속도로 점거시위를 벌이면서 농가부채의 실질적 경감과 농산물가격 보장을 요구하였다. 12월 7일에는 2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중부권 상당수 시군과 전남북·경남북 지역농민들은 막대한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항의표시로 고속도로 점거시위와 함께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 투쟁의 결과로 12월 20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2000년의 농가부채대투쟁이 갖는 의의는 첫째,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다. 1985년에 처음으로 농민들이 장터 등 거리에서 옥외집회를 가지기 시작한 이래 대규모 집회시위가 주요투쟁수단이

었는데, 고속도로 접거는 투쟁방법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1999년 협동조합개혁 과정투쟁에서 분열되었던 전농과 한농연이 힘을 합쳐 농가부채 해결투쟁에 나섰다라는 점이다.

② 199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흐름

1991년은 미국에 의한 수입개방이 구조적으로 확립되는 대외적인 조건과 이에 굴복하여 자신의 부도덕한 정권 연장을 위해 쌀개방, UR협상 등을 일방적으로 수요한 정권의 농어촌종합 발전대책이 완전히 가시화되면서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책이 총체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다. 경북 농민운동은 1991년 5월 투쟁에서 정치적 과제를 내걸고 안동, 경산, 김천, 예천, 상주 등지에서 '공안통치분쇄', '노태우퇴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같은 해 하반기의 주요 투쟁사업은 쌀수입저지와 전량수매투쟁에 맞춰 일관되게 전개되었다. 경북지역은 9~10월 동안 다양한 교육사업, 농민단합대회 등에서 쌀투쟁을 결의하였으며, 마침내 11월 17일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주에서 '경북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후속 투쟁으로는 봉화의 '옥수수투쟁'이 있었다.

1992년은 4월 17일 안동, 의성, 성주, 5월 2일 상주의 영농발대식으로 상반기 투쟁이 시작되었다. 영농발대식의 목표는 1992년의 주요 투쟁활동인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현안투쟁을 위해 총선으로 이완된 조직을 재정비하고 농민대중과의 친화력을 재고하는데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대중과의 친밀감을 형성했으며, 봄철 농번기 투쟁을 조직화하였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경북 의성에서는 1,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가부채탕감 및 쌀값보장 전량수매 쟁취 경북농민대회'가 10월 2일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성과는 농업·농민문제와 민주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농민대중에게 선전하였으며, 각 민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였고, 농가부채탕감의 정당성을 확산시켰다는데 있다. 또한 11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전개된 '농가부채 탕감 및 쌀값보장 전량수매를 위한 각군 동시다발 집회 및 선전주간'은 경북농민대회의 성과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대선에 맞추어 민자당의 반농민성을 선전하고 폭로하였다. 이어서 12월 1일 경북 선산군 고아면 면사무소 앞에 쌀 600가마 야적과 12월 3일 상주군 민자당 지구당 앞 200가마 야적을 시작으로 쌀투쟁 선전전이 15일간 전개되었다.

1993년 활동은 먼저 2월 15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쌀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경북지역에서 500명이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농민대회를 통해 <전국농민회총연맹>뿐만 아니라 <한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와의 공동주체로 쌀수입저지에 대한 농민단체간이 공동선전이 구축되었으며, 대선패배의 충격 속에서도 1만 2천여 명의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운동의 힘을 보여주었고, 농민회원뿐만 아니라 경북 선산, 울진에서는 일반농민도 참여하는 대중성을 보여주었다. 하반기는 11월 20일 '신농정 전면수정과 냉해보상을 위한 경북농민대회'가 김천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었다. 12월 1일 영덕군 병곡면의 '벼적재투쟁'(면사무소, 160여 가마)을 시작으로 12월 2일에는 안동에서 '안동 농민대회'(신시장, 300여명)가 있었으며, 3일부터 22일까지 안동농민회의 '냉해재조사 및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농성이 있었다. 그 외에 12월 7일 '쌀수입반대 국민대회'가 서울역에서 개최된 것을

전후로 경북지역에서는 수입개방저지 및 농기계반납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예컨대, 4일 고령군 농민회의 농기계반납투쟁(군청 등 10여대), 10일 영주 영풍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원당천, 100여명), 청도군 금천면 차량시위(20여대), 11일 수입개방저지 대구·경북 시·도민 2차 결의대회(대구백화점 : 경산, 청도 등 30여명), 12일 봉화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시장, 300여명), 청송군 현서면 농기계반납투쟁, 13일 경산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경산시 시장 300여명), 14일 영양군 농민회 농기계반납투쟁(군청, 30여대), 영덕군 남정면 농기계·토지문서 반납 투쟁, 15일 청송군 차량시위 및 선전전(20여대), 17일 선산군 농민대회(시장, 150여명), 의성군 농민대회(시장, 200여명), 상주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로터리, 300여명 농기계 2대 불태움), 18일 대구·경북지역 비상대책위원회 3차 시·도민 결의대회(대구백화점 : 경산, 청도 등 30여명), 19일 고령군 농민대회 및 선전전(국악당 후계자회 등 200여명), 20일 미문화원 진격투쟁(안동, 의성, 금릉 등 50여명), 22일 성주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우시장, 300여명), 23일 영주 영풍농민회 2차 농기계반납투쟁(시청, 3대), 24일 경산군농민회 차량시위(30여대), 성주, 영주, 안동지역 거리 선전전, 29일 대구·경북 비상대책위원회 거리 선전전(대구백화점 일대)으로 이어져 1994년 1월 4일 영주 영풍농민회 3차 농기계반납투쟁으로 이어져 15일 쌀수입저지를 위한 노동자·농민대회(대구백화점, 150명 참가), 22일 영주 영풍농민회 4차 농기계반납투쟁(시청, 3대), 30일 안동지역 거리 선전전 및 서명운동 전개로 계속되었다.

이처럼 1994년은 전년도에 지속적 투쟁을 시작으로 2월 1일 대학로에서 '국회비준거부 UR재협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대구·경북 비상대책위원회 거리 선전 및 서명운동(동대구역 일대), 안동지역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12일에는 대구백화점 일대에서 '국회비준거부 UR재협상을 위한 거리문화제'가 열렸다. 4월 5일에는 'UR 비준저지를 위한 김천, 금릉 농민회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이, 9일에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R 밀실협상 규탄 및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대회'가, 11일에는 'UR국회비준저지 및 재협상 쟁취를 위한 경북농민 비상결의대회'가 경북대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하반기에는 11월 12일 'UR국회비준저지, 추가협상쟁취 및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경북농민대회'가 안동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12월 8일에는 경상북도 전군 동시다발 차량시위 및 민자당 지구당사 항의 농성(11개 군에서 시행)과 의성군 다인면 농민회의 벼적재투쟁(면사무소, 250여 가마)이 있었다.

1995년 상반기 농민운동은 1월 12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봉화군 농민회의 '불량비닐 피해보상을 위한 상경투쟁'으로 시작되었다. 20일 상주농민회의 '농협민주화투쟁', 3월 18일 고령군농민회의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국악당 300여명, 6월 10일 400여명)가 이어지면서 4월 23일 'WTO 이해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보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경희대에서 개최되었다. 1995년 하반기의 주요 투쟁방향은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으로 모아졌다. 11월 27일 상주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경북농민대회'를 시작으로 12월 4일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영덕농민대회'(영덕시장, 150여명), 11일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안동농민대회'(길안,

600여명), 14일 '통합의료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의성농민대회'(의성장터, 200여명), '통합의료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영천농민대회'(시민회관 앞, 300여명)가 전개되었다.

1996년은 2월 10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통합의료보험, 쌀자급과 직접지불제도 쟁취 및 농산물 제값받기 96 전국농민대회'(경북 519명 참가)를 시작으로 상반기 투쟁이 전개되었다. 하반기 투쟁으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쌀자급 및 통합의료 쟁취를 위한 도보행진'(8월 3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9월 10일 여의도까지 진행)에 경북지역은 전 기간 16개 시·군 농민회에서 100여명이, 이어 9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통합의료보험과 쌀자급을 위한 96 전국농민대회'에는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그 외에 11월 12일 고추 정부수매를 요구하며(근당 3,700원)하며 시내행진한 '봉화군 농민대회'(농협 옆 주차장, 200여명 참가)를 시작으로 20일 김천시 농민대회(강변주차장, 20여명 참가), 22일 안동시 농민대회(신시장, 250여명 참가), 24일 영양군 농민대회(복개천, 300여명 참가)가 개최되었으며, 12월 4일 청송군 농민대회(강변주차장, 200여명 참가), 영덕군 농민대회(5일장터, 50여명 참가)로 이어져 12월 7일 '쌀수매가 인상 및 통합의료보험 쟁취를 위한 96 경북농민대회'가 영천시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998년 상반기 활동은 3월 27일 의성농민회의 '풍년기원제 및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영농발대식'(10시, 마늘시장, 회원 100여명, 농민 700여명 참여)으로 시작으로 4월 4일 영양군농민회의 1차 선전전(10시, 영양읍), 7일 영천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영농발대식'(10시, 문화회관 앞, 회원 100여명 참석), 안동시농민회의 교육 및 영농발대식(10시, 농협시지부, 100여명 참석), 11일 울진군농민회의 선전전, 경산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과 농정 파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1차 경산농민대회'(11시, 경산시장, 회원·농민 100여명 참석), 29일 고령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고령군 농민대회'(9시, 국약당 앞, 농민회원, 농업경영인 등 100여명 참가), 5월 12일 구미시농민회 '대통령 농정공약 촉구 및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미시농민대회'(9시, 복개천, 한농연 구미시연합회 공동주최, 200여명 참석)로 전개되었다. 하반기 활동은 7월 2일 의성군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과 한충련탄압 중지를 위한 의성군농민대회'(8시, 복개천, 300여명 참석)를 시작으로 3일 봉화군농민회의 '농민·학생 한마당'(10시), 5일 성주군농민회의 '식량자급과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농민·학생 한마당', 6일 경산시농민회의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산농민대회'(11시, 경산시장 입구, 150여명 참석), 7일 상주시농민회의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상주 농민학생 결의대회'(11시, 동상로터리, 1,100여명 참석), 영천농민회의 '식량자급·농산물가격보장·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영천농민대회'(10시 수덕예식장 앞, 300여명 참석), 김천시농민회의 '98 김천 농민·학생 한마당'(14시, 감천교 옆 잔디광장, 500여명 참석), 구미시농민회의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구미농민·학생한마당'(11시, 복개천, 120여명 참석), 8일 청송군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한충련탄압중지·고용안정을 위한 농민·학생 결의대회'(10시 진보). 9월 10일 안동 길안면 지회의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길안면 농민대회'(길안면사무소 앞)로 전개되어 9월 15일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농축산물가격보장을 위한 98 전국농민대회'(보라매공원 잔디광장, 전국 3만여 명)로 이어졌다. 경북에서는 이 대회에

경북 1,400여명이 참가하여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힘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어 12월 2일에는 '농가부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수해피해 보상! 98 경북농민대회'가 상주 풍물시장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999년 상반기 경북지역 농민운동은 농협민주화 투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투쟁은 3월 3일 '농협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비상농민대표자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6일 의성군농민회(7명), 농협시지부장, 대의원·단위조합장(13명) 금리인하 항의 면담, 9일 상주시농민회(15명), 농협시지부장, 단위조합장(13명) 금리인하 항의 면담 진행, 11일 봉화군농민회(회장단), 농협군지부장, 단위조합장(일부) 금리인하 항의 면담, 15일 영천시농민회, 농협·농민단체 금리인하 항의간담회, 16일 상주시 농민회 협동조합 개혁 회원 교육, 18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전국 농민조합원대회'(농협중앙회, 90명 참가), '농협현실을 외면하고 농민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망각한 '관치농협강화방안'의 정부주도의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안동시농민회의 성명서 발표로 전개되었다. 이어 4월 7일에는 '농정공약 이행촉구 및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99 경북농민대회'가 대구백화점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전농 경북연맹, 한농연 경북연합회, 경북여성농민회, 경북여성농업인회, 전업농 경북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연대투쟁이었다. 하반기 투쟁은 6월 2일 안동시농민회 예안면지회의 농협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7월 2일 안동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상주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봉화군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영천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99 영천시 농민대회', 구미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경산시농민회의 '협동조합 개혁 선전전, 영양군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성주군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3일 청송군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김대중 정권·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고령군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김천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한마당', 4일 의성군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 6일 영주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를 거쳐 경북지역 농민 117명이 참가한 7월 16일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의료보험 완전통합, 농정공약 이행 촉구 전국농민 결의대회'로 전개되었다.

1999년 하반기 투쟁 역시 11월 2일 옛 우시장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가부채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성주군농민대회'를 시작으로 18일 영천시농민회의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신령·청통면 농민대회'(신령장터, 200여명 참가), 22일 영천시농민회의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영천시 농민대회'(영천시장, 150여명 참가), 26일 상주시농민회의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상주북부지역농

민대회(함창 역 앞, 700여명 참가),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상주서부지역농민 대회'(모서시장, 600여명 참가), 29일 안동시농민회의 '농가부채 완전해결, 수해피해 보상을 위한 안동농민대회'(예안면 월곡농협 앞, 500여명 참가), 30일 경산시농민회의 농가부채 해결과 WTO 추가개방 반대 경산농민대회(경산시장, 500여명 참가), 12월 2일 의성군농민회의 '의성농민 행동의 날', 봉화군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선전전'(봉화장터), 구미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선전전'(선산장터회), 3일 영천시농민회의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금호·대창 농민대회'(금호읍 장터), 4일 고령군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선전전'(고령장터), 김천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영덕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7일 구미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선전전'(선산장터), 예천군농민회의 '농가부채 차량선전전'을 거쳐 10일 서울역에서 1,726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가부채 완전해결·WTO 수입개방 반대·국가보안법 철폐 99 전국농민대회'로 전개되었다. 이 대회 후 각군 농민회는 보다 적극적인 점거농성으로 투쟁방향을 전환한다. 12월 14일 의성군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 정창화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상주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구미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김윤환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경산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김종학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청송군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15일 영천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요구하며 국민회의, 한나라당사 점거농성', 영주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16일 안동시농민회의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요구 권정달, 권오을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져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던 '농가부채 완전해결·농민탄압 규탄·4대 농민개혁입법안 쟁취 2차 전국농민대표자 대회'로 전개되었다.

3) 대구·경북지역 주요 농민운동단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안동가톨릭농민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단체-01
창립일	1978. 12. 27~28	해체시기	현재 활동 중
소속단체/소속지부(상급단체, 가입단체)	한국가톨릭농민회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1978년의 시기는 안동가톨릭농민회의 태동기 - 3·1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76), 함평 고구마사건(77~78), 동일방직 오물 탄압 사건(78), 청기 감자피해(78) 등의 사건이 있었던 시기 - 정치적으로는 너스레 이후 긴장완화, 남북대화 등의 객관적 요인을 주체적으로 수용, 대처할 수 없는 군부독재가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강권 통치를 강화했고, 경제적으로 저임금·저곡가에 바탕한 대외 종속적인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기층민중들의 생활은 날로 위협받았던 시기 - 농업부문은 경제개발계획이 거듭 진행되면서 정책목표가 소득증대-농업생산증대-식량자급-주곡자립으로 계속 후퇴하고 강제행정을 통한 증산을 피하려 하였던 시기 - 교회 안에서도 정의구현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이 활발했으며, 개신교와의 연대도 활발했던 시기 - 민중들의 대응도 활발하여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종교운동, 지식인운동 등이 활발히 연대하여 성장하였던 시기 - 안동교구는 사목국에 농민사목부를 설치하여 공소 주변마을 실태조사, 현지 농민교육, 지도자연수회를 실시하여 이를 가톨릭농민회 조직과 연결하여 교구연합회 창립 		
조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 전국본부(회장단), 총회, 이사회, 감사 사무국 (도) 연합회 (군) 연합회 (면 또는 마을) 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지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대 정호경(루도비꼬) 1978. 10. 14~1980. 08. 31 제 2대 정호경(루도비꼬) 1980. 09. 01~1982. 08. 31 제 3대 정호경(루도비꼬) 1982. 09. 01~1984. 06. 30 제 4대 김재문(이나시오) 제 5대 류강하(베 드 로) 1984. 07. 01~1986. 08. 31 제 6대 류강하(베 드 로) 1986. 09. 01~1988. 08. 31 제 7대 김재문(이나시오) 1988. 09. 01~1990. 08. 31 제 8대 오성백(요 아 킴) 1990. 09. 01~1992. 08. 31 제 9대 오성백(요 아 킴) 1992. 09. 01~1994. 08. 31 제 10대 김학록(안 셸 모) 1994. 09. 01~현재 - 역대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대 권종대(회장) 배용진(부회장) 정재돈(총무) 제 2대 우영식(회장) 이유린(부회장) 정재돈(총무) 제 3대 우영식(회장) 김덕기(부회장) 권종대(총무) 제 4대 배용진(회장) 류위형(부회장) 전용구(총무) 제 5대 배용진(회장) 진상국(부회장) 전용구(총무) 제 6대 진상국(회장) 권태준(부회장) 전용구(총무) 제 7대 이충근(회장) 최병수, 허춘학(부회장) 전용구(총무) 제 8대 이충근(회장) 최병수, 허춘학(부회장) 강성중(총무)
기관지명	연합회보 「마당」, 농민의 길
주요활동가	정호경, 류강하, 김재문 신부, 권종대, 이유린, 정재돈, 배용진, 오원춘, 최경수, 우영식, 김종삼, 김세중, 박두희, 류위형, 전용구, 이재원, 진상국, 김미영, 권태준, 김승균, 이충근, 최병수, 허춘학, 천병만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4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춘계총회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를 주교단 산하 공식 단체로 인준 - 1976년 목성동본당 갈전공소, 풍산공소와 의성군 다인본당 상광공소 등 3개 공소에 현지 농민교육 실시. 3개 가능분회가 구성되어 경북지구연합회 창립에 참여. ◆ 1977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교구사목국에 농민사목부를 설치, 상근 실무자(정재돈·비오)를 두어 공소주변 마을실태조사(19개 본당 27개 공소 33개 마을). 11개 공소마을 선정. 현지 농민교육 실시. 초청, 3박 4일간 농촌지도자 연수회 실시(35명 수료) - 수료 농민들이 가톨릭농민회 가입, 회원이 확대되기 시작. 두드러진 활동 '쌀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조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해 상조회(분회장 권종대), 청기분회(분회장 오원춘) 새로 조직 - 1977년 8월 24일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북연합회에서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협의 회로 분리, 조직. - 1977년 10월 18일 농민·노동자 양심수인을 위한 기도회(안동 문화회관). 사목국장 정호경 신부, 목성동 주임 류강하 신부 구속. 전국 사제단 기도회 개최. 교회의 사회참여 분위기 고조 ◆ 1978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물가 폭등, 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 주택개량 등 전시행정과 증산강제로 농가부채 급증. 흑심한 가뭄까지 겹쳐 농가경제가 극도로 악화. 농산물 생산비 보장과 강제행정 철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 춘천교구 연합회가 창립되자마자 농민회보(농협총대를 임명하는 곳이 있다는 내용을 유언비어)를 문제 삼아 간부 3명 구속. 농민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2년째 계속되어온 함평 고구마피해 보상을 위한 농민기도회와 8일간의 단식농성에 전국적 힘을 결집해 승리함으로써 농민운동사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싸움 전개 - 안동교구 청기 감자피해(군과 농협이 공급한 이모작 감자 '시마바라' 씨앗이 불량하여 폐농) 발생. 보상 활동 시작 - 풍천 지역 추곡 외상수매시 농협융자금 상환을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을 시정, 요구하여 해결 - 비료 조별판매 해결, 농약강매 해결, 강제출자 거부, 양수기 공동이용, 신용협동 활동 등을 전개 - 쌀 생산비 조사 17명이 완료하고 서명운동 전개 - 공소 주변 18개 마을실태 조사, 12개 마을 현지교육(연 624명 마을의 실태를 조사하고 참석), 지도자 연수회는 2회 68명 수료 - 구담분회(분회장 김종삼), 하갈분회(분회장 김세중), 신흥분회(분회장 박두희)가 새로 창립 - '농민과 농촌과 교회'를 주제로 교구 사제, 수도자, 전교사 연석 세미나 (5.22~25) 개최. "농민을 위한 기도회" 열고 '우리의 각오' 채택 -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 임원 연수회 안동 상지 전문대학 기숙사에서 실시 (7.24~28).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 감사제(영남지역) 상주 함창성당에서 갖는 등 전국적 행사 개최 - 12.27~28일 교구장 이하 교구사제단 전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창립. 지도신부에 정호경 신부 임명, 초대회장 권종대, 부회장 배용진, 총무 정재돈 선출
--	--

◆ 1979년 활동

- 창립 첫째 활동목표 '분회중심활동강화', '조직확대와 전회원 활성화'로 잡고 활동 전개. 청기 감자피해 보상운동과 관련하여 빚어진 세칭 오원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운동의 중심이 농민운동 탄압저지와 종교자유수호투쟁으로 결집. 전조직은 유신독재의 농민운동 탄압, 종교탄압에 대응한 활동을 한국 천주교회와 일치하여 추진
- 안동농민회사건(세칭 오원춘 사건)과 관련한 전국천주교회의 일치된 투쟁은 한국천주교회의 대사회운동 중 가장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유신독재의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투쟁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
- 권중대 회장 연행 및 수배, 정재돈 총무와 정호경 지도신부 구속. 탄압과 투쟁 속에서도 벼품종 선택권 쟁취투쟁(상광, 축동, 쌍호, 청기), 수세기정(쌍호), 강제출자거부, 비료·농약 공동구매(갈전, 상광), 공동방제(상광, 구담, 갈전), 마을잔치, 율놀이, 야유회, 양서보급 등 현장 활동 전개
- 쌀 생산비조사 20명이 완료. 계엄 하에서 열린 전국추수감사제(12.12, 대전)에 180명 참석
- 공소 주변 15개 마을조사, 현지교육 13회(584명), 지도자연수회(26명), 농지세조사(갑류 51, 을류 12농가), 농민의식조사(230농가) 실시
- 조직 활동 실적으로 회원 67명, 분회 2개(쌍호, 축동) 확대

◆ 1980년 활동

- 활동목표 '전조직 활성화와 확대강화. 5·17 이전까지 민주농정실현과 농민 권익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전국적 집회와 활동에 활발히 참여. 5·18 광주항재 이후 조직의 질적 고양과 조직관리에 주력. 70년대 운동의 부족함을 솔직히 자인하고 삶과 운동이 하나 되는 운동 실천에 대해 논의 시작
- 공해문제, 핵문제, 물질문명문제, 독점자본과 권력의 문제, 미국문제, 통일 문제 등이 농민문제와 하나라는 인식이 더욱 심화. 민주정부수립 없이는 농민문제 해결도 없으므로 그 실천력 확보방안에 대한 공부와 논의 소집단으로 진행
- 정재돈 총무 광주항쟁관련포고령위반으로 한 달간 합동수사본부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남
- 현장 활동은 전체분회의 75%가 1과제 이상 실천(경제협동 58%, 권익실천 및 부락민주화 50%, 문화활동 50%, 봉사활동 67%)
- 전국과제실천으로 쌀 생산비조사 26농가가 완료. 추수감사제(11.28, 예천)를 통해 여론화. 농협민주화활동으로 회원이 총대나 임원에 진출하고, 문경군에서는 회원이 주도하여 단위농협임원협의회를 구성
- 기본사업으로 마을실태조사 10개 마을, 사랑방교육 71회(마을 기초교육 44, 분회 교육 27), 지역교육 6회(233명), 소집단 훈련 3회, 피정 2회, 농촌지도자연수회 등 실시

- 풍양분회, 분화분회 새로 확대

◆ 1981년 활동

- 활동목표 '농촌사회민주화를 위한 현장조직력 강화'. 전분회의 82%가 1과제 이상 실천, 그 중 50%는 지속적 과제로 되고 있다고 평가(경제협동 11개 분회와 3개 예비분회, 권익실천 및 마을 민주화가 4개 분회와 1개 예비분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순회아동문고' 설치
- 전국과제 농협민주화활동실천 10개 분회, 쌀 생산비조사 27농가가 완료하고 대회 개최. 농지세기정활동 7개 분회에서 실천
- 교구연합회로서는 유일하게 '안동농민회관' 건립. 운동과 발전의 기지로 삼아 각종 활동 전개. 대전에 '한국가톨릭농민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실시, 낙성식
- 공소 주변 마을 12개 조사, 조세공과금실태조사 7개 지역, 소작관행실태조사 8개 지역, 수세 및 농조실태조사 6개 지역 등 활발할 조사활동
- 풍물, 강습 등 농민문화활동 시작, 교육에 활용
- 사랑방교육 84회(601명), 지역교육 16회(824명), 초청교육 10회(24명), 파견교육 10회(30명) 실시
- 협의회 다인분당 중심으로 처음 생겨 생활권 중심의 지역운동을 전개
- 봉화 구들방분회, 다인 대농분회, 풍천 진천분회 새로 조직
- 농촌부녀교육 시작. 여성농민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을 다루어 호평
- 지도신부에 교구 사무처장 김재문 신부 임명, 신입회장 우영식, 부회장 이우린, 권중대 교육부장 상근, 교육활동 활발

◆ 1982년 활동

- 활동목표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현장조직력 강화'. 활동방침 1) 전조직력 현장 집중, 2) 조직기반확대 및 지도력 강화, 3) 재정자립증대
- 광주·부산 미국문화원방화 사건에서 비롯된 농민회에 대한 왜곡, 비방과 정재돈 총무와 권중대 농민회관 총무 이와 관련 입건조사. 그 과정에 농지 세제 시정 활동, 쌀도입 부정폭로, 외국농산물 수입중단, 농조조합비 시정, 농협민주화활동 등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 전개
- 경제활동 13개 분회, 권익실천, 마을민주화 11개 분회, 문화과제 10개 분회, 봉사활동 11개 분회에서 실천, 그 중 64%는 지속과제로 진행. 주민건강을 위한 자연농법과 민간요법 연구보급
- 한국천주교회 선교 200주년 기념 공소 실태조사연구사업이 주교회의 승인을 얻어 교구별로 실험조사(갈전) 실시, 30개 공소 실태조사, 150여명 신자의식조사 실시
- 공소 주변마을실태조사 7개, 활동사례조사(농협민주화, 농지세 시정, 기초교회 공동체), 교육지원 7회 등 기본사업 수행

- 풍천협의회가 새로 확대, 분회는 옥산, 마암, 공평 새로 조직

◆ 1983년 활동

- 활동목표 '농촌사회민주화'와 '마을공동체 강화'. 활동방침 1) 현장조직 강화, 2) 농민문화 고양, 3) 재정자립도 확립
- 5·16 군부정권이 농민의 자치기능을 마비시키고 농협을 장악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장 임명에 관한 조치법 철폐와 직선제 실현을 주장하는 '농협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전국적으로 실시. 이는 주민자치 요구와 대통령 직선제 요구와도 직결될 수 있겠기에 전행정력을 동원한 집요한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서명운동과 함께 정당대표 간담회와 법안 국회에 제출토록 함
- 사상 유례가 없는 수매가동결조치에 따라 현수막, 벽보 등 농민주장을 표명하는 활동 전개. 전국추수감사제와 농민대회에 대거 참석(다인 협의회 추수감사제 실시). 수매가동결과 수매량제한, 외국 쌀도입으로 인해 누적된 정부미 방출에 항의, 수매량확대요구시위, 수세현물납부시위 등이 각지에서 일어남
- 정부의 농지임대차허용법안제정에 맞서 소작제부활반대를 위한 활동 전개
- 연합회보 「마당」 발간
- 부락기초조사 3마을, 주민건강조사 100명, 농산물공해 9종 조사, 분회교육 46회(434명), 기초교육 28회(129명), 주민교육 11회(233명), 부녀초청 2회(41명), 지도자훈련 2회(66명), 파견교육 7회, 지원교육 10회 실시
- 월소분회와 진보분회 새로 조직
- 정호경 신부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 지도신부로 부임, 회장 우영식, 부회장 김덕기 선출, 정재돈 총무 대구교구 총무로 감으로써 권종대 총무 새로 실무 담당

◆ 1984년 활동

- 활동목표와 방침은 1983년 목표와 방침 계속 추진
- 유화조치 이후 민청련, 민통련과 지역연합운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
- 질·양적으로 향상된 교육선전,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안동가톨릭농민회 세력이 크게 확장, 대구교구연합회와 간부합동연수회(7.30-31) 쌍화에 유치
- 추수감사제 및 경북농민대회(11.20) 대구교구연합회와 함께 다인성당에서 1,500여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당면 농민문제 제기하고 근본적인 변혁 요구
- 남북물자교류와 때를 맞추어 경북농민대회에서 "우리도 농사기술이나 종자를 교류하는 등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 휴전선을 건너치우고 칠천만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을 만들자"고 운동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북한 농사기술, 종자교류 제안
- 농협의 입·출고료 문제해결을 비롯하여 다인협의회와 풍천협의회에서 조합간담회 개최, 조합민주화활동 활발히 전개
- 보리생산실태와 공동체활동조사, 기초교육 15회(110명), 분회교육 60회(423명), 주민교육 9회(274명), 여성교육 1회(25명), 지도자훈련 1회(25명), 간부연수 1회

(51명), 농협교육 1회(31명), 파견교육 8회(1명), 교육지원 6회

◆ 1985년 활동

- 활동목표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공동체 삶의 실천'. 350여 가지 이상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농업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농가경제를 빗더미에 허덕이게 하는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반대활동이 무분별한 외국 소 수입으로 인한 소값 피해 보상운동으로 전개
- 풍양지역을 비롯한 도입 소 피해 실태조사 실시
- 소값 피해보상 소몰이시위(7.21)는 인근 농민 100여명 참가. 그들은 경운기 11대와 차량 1대에 소 9마리와 함께 나눠 탄 채 기동경찰의 저지를 뚫고 다인성당에서 안계 우시장까지 행진. 행진 도중 각종 만장을 앞세우고 다양한 선전활동(전국 22개 지역 소몰이 시위)
- 규모나 투쟁방법, 성격으로 볼 때 한국농민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활동으로 농민운동의 중요성과 가능성 확인. 쌍호를 비롯한 여러 분회의 공동체 실천경험이 투쟁에 있어서도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입증
- 여성농민운동의 가능성이 소몰이시위를 통해 확인
- 벽서운동 등 다양한 선전활동 전개
- 2·12 총선에 즈음, 지역별로 후보초청간담회를 실시하고 유세장에 농민주장 깃발을 들고 선전활동. 다인협의회는 당시 민정당 후보의 선거부정 고발
- 다인과 상주에서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실시
- 대농분회의 영농회조직운영, 수세현물납부 등이 마을단위활동으로 두각
- 교육활동으로 기초교육 10회(72명), 분회교육 7회(53명), 주민교육 12회(364명), 지도자훈련 2회(62명), 여성교육 2회(76명), 간부수련회 1회(64명), 파견교육 4회(18명), 교육지원 10회 실시
- 입암분회를 비롯한 3개 분회 새로 확대
- 신임회장 배용진, 부회장 류위형 활동

◆ 1986년 활동

- 활동목표와 방침은 4년째 동일. 외국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부채의 폭증을 파산 농가와 자살농민 속출로 농가부채해결과 외국농산물수입저지투쟁에 집중
- 영양협의회 발족 즉시 농가부채탕감대회 개최(3.30). 풍천협의회 구담 백사장에서 농가부채탕감대회 개최(4.13). 교구연합회는 안동문화회관에서 '농민·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탕감 농민대회' 개최(4.16). 이어 안동역 광장에서 시위, 이때 최루탄이 처음 등장. 이날 대회는 대중지지 획득, 사기와 자신감 고취, 정치의식 고양으로 민주헌법쟁취,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정치적 요구로 발전. 이후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지역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운동이 개헌 투쟁에 참여

- 봉화에서 빗 때문에 자살한 '고 김정섭 추도식'(8.5) 개최, 당시 농민문제를 여론화
- 양담배가 수입되자 국치일인 8월 29일 전조직이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본부현판식을 갖고 9월 1일 당국의 폭압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30개 군에서 전국 동시다발투쟁 실시
- 안동 9월 3일 '고문 및 미국 농·축산물 수입규탄대회' 목성동 성당과 안동문화회관에서 개최. 9.1~4일간 농성투쟁
- 쌍호에 농민회관 축성(9.7). 쌍호분회 활동 월례회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100회 돌파하는 모범사례
- 신입 총무 봉화 전용구, 교육부장 영양 이재원 활동

◆ 1987년 활동

- 활동목표 '농촌사회의 민주화' 및 '공동체 삶의 실현'. 운동방침 1) 지역운동 확대, 강화, 2) 반농민적 정책과 제도 철폐, 3) 생활공동체 기반구축과 재정자립도 확립
- 민족·민주운동의 일대 분기점
- 박종철군 고문치사(2·7, 추도회)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3.4, 고 박종철군 추모제 및 고문규탄국민대투쟁) 4·13 호헌철폐, 군사독재정권타도투쟁으로 이어져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 마침내 6·29 선언에 이어 대통령 직선제 쟁취. 12월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돌입
- '동장부터 대통령까지 우리 손으로'란 슬로건이 나왔던 4·13 호헌철폐 및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한 교구사제단의 단식기도로 시작된 6월 항쟁의 지역투쟁(6·10, 고문, 살인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6·26 호헌철폐 및 민주개헌 쟁취 국민대회 양대 집회) 가톨릭농민회조직이 주도적으로 수행, 대중성을 확보하고 안동, 상주, 점촌, 봉화, 영덕, 청송, 영양 등 7개 지역 국민운동본부조직결성에 참여. 지역순회, 광주학살 사진전, 비디오 상영회(의성, 상주, 봉화, 안동, 청송, 문경, 예천 등)를 통해 6·29 선언의 기만성과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본질을 폭로하는데 주력, 특히 쌍호분회의 수매장, 광주민주화운동사진전은 많은 농민들의지지 확보
- 6월 항쟁 이후 안동연합회는 대선국면에서도 일천만 농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한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야권후보 단일화 및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 9월 29일 한국 농업의 주요보루인 '쌀 생산비 보장과 농협민주화쟁취추진위원회' 결성식이 상주 사벌 공소(100여명 참여)에서 개최
- 9월 30일 의성 천주교회(150여명 참여), 10월 30일 예천 풍양장터(300여명 참여), 의성 다인장터(100여명 참여)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전개. 농가부채탕감, 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활동은 16개 분회에서 벽서, 신문발행(봉양 농민의 소리, 영양협의회 신문)으로 전개
- 교육활동으로 쌍호 농민회관에서 78명이 모인 가운데 여성교육
- 회장 배용진, 부회장 진상국, 총무 전용구, 여성부장 김미영 활동

◆ 1988년 활동

- 활동목표와 방침은 1987년도와 동일.
- 1987년 6월 항쟁,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 대중투쟁을 통해 분출된 민중의 요구는 미국과 독재정권의 지배방식을 유화적으로 전환시켰고, 4·26 총선결과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여 지배체제는 민족·민주운동 역량의 성숙과 함께 이완되기 시작
- 안동연합회는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대선투쟁 이후 침체된 조직역량강화(상반기), 운동역량의 강화를 위한 군농민회 조직에 주력(하반기), 내적으로 교육, 홍보, 2개의 특위 구성. 연합회(5회), 지역, 분회 신문 발간 일반 농민과의 일치에 주력. 4·22 미국농산물수입반대전국대회(전국대), 5·26, 11·17 미국농산물수입반대전국대회(여의도) 투쟁에 적극 참여
- 영양의 고추제값받기투쟁을 시발로 각 지역별로 의료보험통합제쟁취와 민주농협건설, 농산물제값받기투쟁을 하반기에 수행
- 하반기 투쟁 지역별 현황
 - ▷ 영양 : 1) 9월 9일 고추제값받기 제3차 영양농민대회 3,000여명 참여, 2) 청기, 수비, 일월면 현물상환, 3) 11월 14일 고추전량수매촉구 및 현물상환결의대회 500여명 참여
 - ▷ 봉화 : 1) 9월 12일 고추생산비보장 제1차 봉화농민대회 1,000여명 참여, 2) 9월 17일 고추생산비보장 제2차 봉화농민대회 1,000여명 참여, 3) 9월 20일 재산면 수매거부대회 100여명 참여, 4) 9월 23일 명호면 수매거부대회 300여명 참여, 봉성, 법전, 물야면 대회, 5) 10월 2일 고추생산비보장 제3차 봉화농민대회 500여명 참여, 철도점거, 18명 연행, 4명 구속, 6) 10월 3일 구속자석방촉구대회 100여명 참여, 7) 11월 7일 소처면 수매요구대회 50여명 참여, 8) 11월 17일 현물상환결의대회 200여명 참여, 9) 12월 9일 민정당 중앙당사 앞 농성 200여명 참여
 - ▷ 청송 : 1) 9월 13일 고추제값받기 진보면 농민대회 700여명 참여, 2) 9월 14일 고추제값받기 안덕면 농민대회 500여명 참여, 3) 9월 16일 고추제값받기 현서면 농민대회 300여명 참여, 4) 9월 19일 고추제값받기 청송군농민대회 1,500여명 참여, 5) 12월 서울 농협중앙회 농성(부남면), 6) 김대중 집 앞 투쟁(안덕면), 7) 청송군(현서, 안덕, 진보, 파천) 현물상환투쟁
 - ▷ 안동 : 1) 9월 20일 농산물제값받기 길안면 농민대회, 2) 9월 28일 농산물제값받기 안동, 예천 농민대회(풍산) 800여명 참여, 3) 10월 2일 농산물제값받기 안동군 농민대회 5,000여명 참여, 4) 11월 12일 농산물제값받기 제3차 안동농민대회 500여명 참여
 - ▷ 의성 : 1) 10월 6일 농산물제값받기 의성군 농민대회 1,500여명 참여, 농협군지부 농성, 2) 옥산, 다인, 단촌 등 8개면에서 현물상환 민정당사 농성
 - ▷ 상주 : 1) 10월 8일 농산물제값받기 사벌면 농민대회 100여명 참여, 2) 11월 25일 현물상환

- ▷ 예천 : 1) 10월 12일 농산물제값받기 예천군 농민대회 500여명 참여, 2) 12월 8일 풍양에서 현물상환
- ▷ 영덕 : 1) 11월 8일 지품면 한풀이 마당 100여명
- ▷ 문경 : 1) 11월 호계면 호계리 농민투쟁 80여명
- ▷ 경북 : 1) 10월 12일 경북농민대회 2,000여명
- ▷ 전국 : 1)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
- 상주, 문경의 수세폐지투쟁(서명활동, 군·면단위 대책위 구성). 88년도 하반기 투쟁은 올림픽 기간 중에 군별, 면별로 지속적(50여일), 대중적(집회당 50~500여명 참여) 농민운동. 특히 반미, 반독재 투쟁의 성격으로 점차 발전되면서 전두환 구속, 부정축재환수, 구속농민석방 요구, 군청, 농협으로의 진입이 일반화(군청, 단위농협부채현물상환철폐투쟁). 철도점거와 함께 개방원흥 미국의 성조기, 반농민적 농정 등의 상어를 화형시키는 의식. 경찰의 진압방식은 헬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함. 이 과정에서 30여 농민 연행, 4명 구속. 그 외 8·15 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순례행진에 지역별 연대
- 조직사업으로 상주협의회 창립(4.26), 영양의 수하, 상주의 화동, 남부, 동부 등 4개 분회 결성
- 농민운동의 대중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군별 농민회 결성에 주도적 참여(안동시·군, 영양, 예천, 청송, 영덕 농민회 준비위원회 결성)
- 생활공동체 기반확충사업 일환으로 20여개 분회에서 공동작업, 농기구 공동이용 및 구입, 4개 분회가 풍물패를 조직, 부락잔치

◆ 1989년 활동

- 1989년은 2·13 여의도 농민항쟁 참여 이후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과 더불어 농민대중의 운동역량의 성숙에 맞추어 군농민회의 건설과 새로운 기틀릭농민회 운동을 모색하는 기간
- 활동목표는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농민운동의 통일단결과 질적 발전, 공동체 삶의 실현'. 운동방침으로는 지역별 대중적 군농민회 역량 강화와 생활공동체 실현
- 1989년은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도입으로 인해 농가부채가 호당 평균 600여만 원에 달하고 88년 현재 소작농가 70%, 소작지는 30.5%에 이르는 실정. 식량자급도는 38.8%, 농약중독 혹은 농약자살 농민도 연간 2,000명 이 넘으며, 연평균 50만명의 농민이 이농하는 현실에서 '4·18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지금의 절반수준인 400만 이하로 농업인구를 줄이려 하고 있는 농업농민의 현실아래서 안동교구연합회 새로운 방향모색.
- 기틀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는 1978년 창립 이후 경북 북부지역의 최대 민족·민주운동 조직체(10개군 회원 분회, 6개군 협의회, 마을조직 44개, 회원 1,000여명)라는 위상을 차지. 그러나 더 광범위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민대중조

직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교회운동으로서의 새로운 기틀릭 농민운동의 방향 모색을 진행하여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

- 3월 1일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 4월 6일 경북농민운동연합 결성에 참여
- 각 협의회 주력을 군농민회로 이전하는 한편,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의 새 기틀릭 농민회운동의 실천적 방향모색. 연합회 내에 군농민회운동역량강화위원회 구성. 지역별 간담회, 각종 초청회, 의원 수련회 등을 통해 새로운 운동 방향으로
 - 1) 생명운동과 생활공동체운동 중심
 - 2) 교회소명을 바탕으로 전체 농민운동을 지원, 협력
 - 3) 생명운동의 이념을 구체화
 - 4) 조직사업은 공소와 본당 구역회 조직에 주력하고 본당 사목회 소속의 농민회로 전환하는 것을 기초로, 새 운동을 향한 전환을 위해 회칙을 개정한다는 결정
- 신임회장 진상국, 부회장 권태준, 간사 김승균 활동

◆ 1990년 활동

- 농업해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UR 협상'은 자연, 인간, 환경 파괴의 산업구조, 핵위협 등과 맞물려 이념을 초월하는 전인류의 과제로서 농업을 살려야 될 필요성 절감
- 한국기틀릭농민회 25주년 전국 대의원회에서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구체화된 주제 제시(2월 26일). 이에 안동교구농민회는 '생명운동의 조직적 실천토대구축'과 다양한 실천사례축적을 90~92년까지의 목표로 결정
- 90년도의 중점목표는 새 운동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조직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회의 등의 운영체계정비와 교회 내의 새 운동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 이 실천을 위해 8~9월 의성, 상주지구와 예천 목성동 본당에서 생명운동을 주제로 연수회(총 150여명 참여) 개최, '생명의 공동체' 출범에 참여, 교구 단위의 유기농업연수회를 11월에 개최(30여명 참여)
- 분회별 사랑방 교육은 1회에서 5회 이상씩 24개 분회에서 생명운동의 필요성과 실천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이를 통해 새 운동의 방향 제시
- 의성, 상주지구 농민회 준비위원회 및 목성동 예천본당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

◆ 1991년 활동

- 90년도 운동의 목표 속에 생명운동을 결의하고 추진하였으나 전국농민회 총연맹 결성 이후 간부, 임원, 실무자들이 군농민회 활동과 전국농민회 일을 병행함으로써 전체 운동역량강화에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가농활동은 형식화. 이의 극복을 위해 조직정비에 주력
- 주요활동은 '우리 밭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여 회원들이 밭을 경작하였고, 지구별 연수회를 통해 조직교육사업 수행
- ▷ 상주지구 : 11월 4일 상주 남성동 천주교회에서 70여명 참여

	<p>▷ 문경지구 : 1월 5일 점촌 모전동 천주교회에서 18명 참여</p> <p>▷ 의성지구 : 1월 24일 쌍호공소에서 15여명 참여</p> <p>▷ 목성동 본당 : 1월 17일 갈전공소에서 16명 참여</p> <p>- 교육내용은 자연건강,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새 가농운동 소개,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방안, 여성문제, 정치정세 등이었고, 결의사항은 공소별 생활협동반 구성과 월별 정기모임, 본당 농민회 조직일정 결정</p> <p>- 신임회장 이충근, 부회장, 최병수, 허춘학, 간사 천병만 활동</p> <p>◆ 1992년 활동</p> <p>- 생명운동의 세계관 확립, 확산, 조직체계 정비 및 교회와 공동활동 강화를 중점목표로 설정, 교구의 92년도 사목방향인 소공동체운동과 결합하여 공동의 교육사업 추진</p> <p>- 활동내용은 회원생활협동반조직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 조직정비에 주력, 유기농 연수를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 교구단위의 자연건강연수, 분회별 모임을 수행하여 지구단위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p> <p>-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영양 고추와 풍양, 사벌의 쌀을 추진</p> <p>◆ 1993년 활동</p> <p>- 93년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판로 개척의 준비기, '생명농업의 종합대안창출'과 '튼튼한 실천토대 구축'을 활동목표로 세우고 한국형 농업발전의 구체적 방안연구와 마을 협동반 건설과 토대구축에 주력</p> <p>- 3월 총회시 농민회 특별사업으로 유기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직판사업을 준비하고 결정(100여명 참여)</p> <p>- 9월 대구교구 복지회와 우리농산 한생명 사업본부를 결성하여 대구 직판장(효성점) 개설. 그 목적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에 처한 농업·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2) 모든 인간이 서로 섬기고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 3)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인류복음화 사업에 기여 <p>- 회장 이충근, 부회장 최병수, 총무 전용구 활동, 새로 창설한 우리 농산한생명 대표이사로 배용진 선임</p> <p>◆ 1994년 활동</p> <p>- 93년 활동목표를 기초로 하고 한국형 농업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실천에 주력</p> <p>- 구체적 실천과제는 각종 유기농업 시범포를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가공사업 추진, 도농교류사업추진, 우리 밀 생산지 조직건설과 재배면적 확대. 생산, 가공, 유통을 종합적으로 실천</p>
--	---

	<p>- 현재 교구농민회의 회원수는 219가구, 우리농산 한생명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p> <p>- 회원 출자금(9천여만원)과 대구교구의 부지지원에 힘입어 효성(93.9), 대덕(94.1), 지산(94.1), 포항(94.2), 상동(94.2), 범어(94.3), 월성(94.9), 구미(94.9) 차례로 개점, 칠곡 다부동에 물류센터 설치</p> <p>- 우리농산 한생명사업 본부장 전용구 부회장으로 보강, 신임총무 강성중 활동</p>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농민의 자주적·집단적·지속적 활동으로 농업문제 및 농민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농민과 농촌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동시에 농민과 농민공동체의 자기완성을 위해서 농민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더 인간답고 더 공동체답게 변혁시킴으로서 농촌사회의 민주화에 기여
관련사료 (창립선언문, 규약)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농민회, 천주교 안동교구 1996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단체-02
창립일	1990. 4.24.	해체시기	현재 활동 중
소속 단체/ 소속 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배경과 과정	<p>- 1986년 말에서 1987년 초 사이에 군단위 대중조직이 급속히 확대. 대부분의 조직은 보다 분명한 농민적 입장의 지향과 농민운동에 있어 비농민적 성격을 탈피, 조직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농민 내부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량 결집을 통해 충원하기 위해 종교적 형식을 탈피하고 자주적 농민대중조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결성</p> <p>- 87년 순수한 농민운동 단체인 전국농민협회(전농협)가 결성되고, 89년 3월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연) 결성. 그러나 전농협의 경우 주로 가농과 기농 중심의 지원과 지도 하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우선주의적 경향 팽배.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사업과 조직화 및 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농민대중조직으로 자립잡지 못한 상태. 그리고 전농연은 조직구성 주체가 이중체제로 되어 있었고 일반 농민대중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민운동의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함</p> <p>- 전농협과 전농연, 그리고 어느 쪽에도 가입을 유보하면서 통합된 조직을 추구하고 있던 독자적인 농민단체들이 동조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창설</p>		
조직내용	<p>- 경북도연맹의 조직기구</p> <p>도연맹 의장단: 의장, 부의장 감사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 : 조직부, 교육부, 총무부</p> <p>군농민회 면지회</p>		

	마을분회
기관지명	“승리와 희망”
주요활동가	<p>경북도연맹 의장 : 윤정석 부의장 : 진상국, 노병식, 이유인 감사3명 : 김덕기 외 사무국장 : 함중호</p> <p>조성식(경산군농민회), 석성만(고령군농민회), 송재상(금릉군농민회), 이상식(봉화군농민회), 김실경(선산군농민회), 노병식(성주군농민회), 신종만(안동군농민회), 신자희(영덕군농민회), 박두용(영양군농민회), 이상철(영일군농민회), 이상훈(영주영풍농민회), 박상섭(예천군농민회), 우영식(의성군농민회), 노정대(청송군농민회) : 1990년 전농 창간호 기준</p>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p>◆ 1989년 활동</p> <p>3.01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 4.06 경북농민운동연합 결성</p> <p>◆ 1990년 활동</p> <p>4.24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4.24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창립</p> <p>◆ 1991년 활동</p> <p>3.11 전농 경북연맹 제2기 대위원 대회(오후 1, 대구대 중강당) 의장 : 노병식, 부의장 : 조성식, 박기호, 황병윤, 감사 : 이유인, 석성만</p> <p>3.16 상주군 농민회 사무실 개소 3.19 경산군 농민회 사무실 개소 3.20 긴급 집행위원회(3.23 전국농민대회 참가 지침 전달) 4.02 골프장건설반대지원공동대책위원회(오후 7, 도연맹사무실) : 민교협, 건치, 농민회 4.04 경제협동사업위원회 준비모임(오전 12, 청송 진보) 4.06 도·농학 연추 준비실무모임(대경총연, 서충련 서지, 농민회) 4.07 영덕군 남정면 농민회 사무실 개소 4.08 제1차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연석회의(안동 농민회관), 농민-학생 간담회(봄 농활 준비모임) 4.30 영덕농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p>

5.03	제1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5.15	제1차 긴급운영위원회(안동 학생회관)
5.20	골프장건설반대지원공동대책위원회(도연맹사무실)
5.30	도·농민-학생 연대추진위원회(도연맹사무실)
6.12	경제협동사업위원회(안동 학생회관)
6.13	도·농민-학생 연대추진위원회(도연맹사무실)
6.17	제1차 정책교육위원회(도연맹사무실)
6.28	제2차 정책교육위원회(도연맹사무실)
6.29	제2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7.04	제2차 긴급운영위원회(예천 풍양)
7.13	제3차 정책교육위원회(도연맹사무실)
7.14	각 군 사무국장 간담회(도연맹사무실)
7.19	제3차 임시운영위원회(대전 가농회관)
7.23	제4차 정책교육위원회(상주농민회 사무실), 도·군 간사모임(도연맹 사무실)
7.27	농활평가간담회(도연맹사무실)
7.30	제1차 선전분과회의(도연맹사무실)
8.01	의성군 단합대회(비안, 150여명 참석), 상주군 공검면 단합대회(중소 냇가, 100여명 참석)
8.12	상주군 단합대회(북문교, 150여명 참석)
8.14	경산군 용성면 단합대회
8.20	제2차 선전분과회의(안동 농민회관)
8.29	도·농학 연추실무모임(대경총연, 서충련 서지, 농민회)
8.30	성주군 단합대회
8.31	제5차 정책교육위원회(봉화)
9.02	상반기 감사(도연맹사무실)
9.05	제3차 선전분과회의(상주)
9.06	제3차 운영위원회(안동 농민회관)
9.08	고령군 우곡면 농민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도진국교)
9.10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9.25	제6차 정책교육위원회(의성)
9.27	“경북 골프장 건설 반대 공대위” 회의(도연맹사무실)
10.01	제4차 선전분과회의(성주)
10.13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10.14	성주군 초전지서 경관 총기난사 사건 대책모임(성주, 고령)
10.16	제4차 긴급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10.20	쌀투쟁(농민추수파업) 간담회

10.23	골프장건설반대지원공대위(송치과)
10.24	제6차 정책교육위원회(안동)
10.30	제4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11.04	“11월 17일 경북농민대회” 준비모임(상임위원회 : 상주)
11.07	안동농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
11.09	“11월 17일 경북농민대회” 준비모임(상주)
11.11	제7차 정책교육위원회(상주)
11.23	금릉군 농민회 사무실 개소
11.30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12.08	각 군 회장 간담회(도연맹사무실)
12.10	금릉군 조마면 농민회 창립 1주년 기념식: 영주 영풍농민회 총회 (회장 : 이준, 사무국장 : 임병렬)
12.15	영주 영풍농민회(평은, 25명 참석)
12.18	청송군 총회(회장 : 이도형)
12.26	제3차 경제협동사업위원회(안동)
12.30	성주군 농민회 총회(회장 : 이석주, 사무국장 : 최진국)
◆ 1992년 활동	
1.04	제5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1.07	제8차 정책교육위원회(청송 현서): 김천·금릉 농민회 총회(회장 : 김근태, 사무국장 : 이용수): 영천농우회 총회(회장 : 손용목, 사무국장 : 서완규)
1.09	예천군 농민회 총회(회장 : 전병철, 사무국장 : 최광음)
1.10	의성군 농민회 총회(회장 : 진상국, 사무국장 : 신택주): 안동군 농민회 총회(회장 : 윤창, 사무국장 : 장취수)
1.13	봉화군 농민회 총회(회장 : 이상식, 사무국장 : 류석암)
1.15	고령군 농민회 총회(회장 : 석성만, 사무국장 : 유지훈)
1.16	영양군 농민회 총회(회장 : 강무중, 사무국장 : 유기재): 영덕군 농민회 총회(회장 : 임태주)
1.23	경산군 농민회 총회(회장 : 조성식, 사무국장 : 김한곤)
1.25	상주군 농민회 총회(회장 : 이재환, 사무국장 : 오정섭)
1.26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1.31	제6차 운영위원회(안동 농민회관)
2.01	제6차 운영위원회(안동 농민회관)
2.21	전농 경북연맹 제3기 대의원 총회(경북산업대학 오후 1시) 의장 : 노병식, 부의장 : 조성식, 이상식, 노정대, 감사 : 이유인, 박재일, 황병윤
2.27	안동 농민회 단합대회

- 2.28 상주 사벌면 농민회 창립대회
- 2.29 골프장 공청회(YMCA 강당)
- 3.02 청도군 동곡면 총회(연무대)
- 3.03 전농 대위원 대회(대전 가농회관)
- 3.13 제1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 3.21 제1차 집행위원회(도연맹사무실)
- 3.30 농·학 간담회(도연맹사무실)
- 4.11 도·농·학 연추회의(도연맹사무실)
- 4.20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 4.23 경산군 단합대회(영천 은혜사)
- 4.27 제1차 정책위원회(도연맹사무실)
- 4.29 전농 창립기념대회 참가(5개군)
- 5.04 영주 농민회 사무실 이전식
- 5.12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 5.13 제1차 선전분과위원회(도연맹사무실)
- 5.20 안동 길안면 농민회 사무실 개소식
- 5.25 도연맹 사무실 이전식
- 5.27 영덕군 지품면 단합대회
- 5.29 제1차 교육분과위원회(도연맹사무실): 제2차 정책위원회(도연맹사무실)
- 6.08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 6.10 영양군 단합대회(입암면): 제2차 선전분과위원회(도연맹사무실)
- 6.11 봉화군 단합대회
- 6.12 도·농·학 연추회의(도연맹사무실)
- 6.19 제2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 6.22 경북지역 양파 생산자 모임(도연맹사무실)
- 7.13 제3차 선전분과위원회 회의 및 단합대회(김천 직지사)
- 7.17 제3차 정책위원회(의성)
- 7.19 도연맹 상반기 감사(도연맹사무실)
- 7.20 제3차 운영위원회(안동)
- 7.24 도 사무국 실무자 수련회(청도)
- 7.25 경산 집행위 수련회
- 7.26 제2차 교육분과위원회(도연맹사무실)
- 7.31 의성군 단합대회(점곡면)
- 8.03~04도 집행위원 수련회(안동 길안면)
- 8.05 안동군 단합대회(녹전면): 상주 공검면 단합대회
- 8.10 윤정석 의장 영치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8.12 상주군 단합대회(상주시 복천교)

- 8.20 상주 모동면 단합대회
- 8.21 영덕군 단합대회(장사 해수욕장)
- 8.24 제4차 선전분과위원회(도연맹사무실)
- 8.26 성주군 단합대회
- 9.01 제4차 정책위원회(경산)
- 9.04 제1차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안동 학생회관)
- 9.05 안동 녹전면 창립대회: 의성 다인면 창립대회
- 9.07 경북농민대회 선전물 제작회의(도연맹사무실)
- 9.20 임시 운영위원회(의성농민회 사무실)
- 9.22 경북농민대회 관련 기자회견(도연맹사무실)
- 9.30 경북농민대회 준비회의(상임위원회)
- 10.12 제5차 정책위원회(도연맹사무실)
- 10.21 제4차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 10.28 제5차 선전분과위원회(도연맹사무실)
- 11.17 사무국 수련회(밀양)
- 11.21 제6차 정책위원회(도연맹사무실)
- 11.25 제5차 운영위원회(안동 농민회관)
- 11.27 경산 국민회의 결성식
- 11.30 경산 국민회의 사무실 개소식 및 공감단 결성식
- 12.03 성주 공감단 결성식
- 12.06 영양 공감단 결성식
- 12.07 성주군 농민회 총회(회장: 이강석, 사무국장: 배운호)
- 12.09 의성 공감단 결성식
- 12.22 금릉군 농민회 총회(회장: 이대화, 사무국장: 백승철)

◆ 1993년 활동

- 1.05 영덕군 농민회 총회(회장: 홍세기, 사무국장: 민경호)
- 1.08 봉화군 농민회 총회(회장: 이차기, 사무국장: 권영목)
- 1.13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 1.18 경산군 농민회 총회(회장: 이상덕, 사무국장: 김한곤)
- 1.27 전농 대의원 대회(대전 가농회관)
- 1.30 청송군 농민회 총회(회장: 조현광, 사무국장: 노정대)
- 2.03 제6차 운영위원회(집행위 연석회의)
- 2.06 의성군 농민회 총회(회장: 장규상, 사무국장: 신택주)
- 2.08 상주군 농민회 총회(회장: 권태준, 사무국장: 이철수)
- 2.10 영양군 농민회 총회(회장: 이재원, 사무국장: 김동운)
- 2.12 안동군 농민회 총회(회장: 우익규, 사무국장: 임극호)

2.13	고령군 농민회 총회(회장 : 석성만, 사무국장 : 박대경)
2.15	전국농민대회
2.22	도연맹 감사
2.25	총회준비 소위
3.06	제4기 도대의원 총회(오전 11시 경북산업대학교)
3.12	신·구 사무국 회의(사무국 이전 회의)
3.13	대경연합 대의원회의(오후 4시 경북대학교)
3.18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후 2시 도연맹사무실)
3.21	경산민주단체 체육대회
3.22	전농 중앙위원회
3.26	제1차 운영위원회
3.30	대경연합 중앙위원회(노병식 의장 참석)
4.02	전농 비상중집위(오후 2시 전농사무실, 의장, 사무국장 참석)
4.03	도 사무국, 의장단 연석회의(오후 1시 도연맹사무실)
4.07	전국 농·학 연추회의(오후 7시 대전, 전성도 참석)
4.09	청도 금천면 농민회 회원 단합대회(백암은천)
4.15~16	간부활동가 간담회(안동 농민회관)
4.19	전농 상집위(낮 12시 전농사무실, 조남근 사무국장 참석)
4.21	전농 중집위(낮 12시 전농사무실, 노병식 의장 참석)
4.22	의성군 영농발대식: 도·농·학 주체 간담회(도연맹사무실)
4.26	안동농민회 회원 단합대회(오전 10시 평은 유원지)
4.27	대경연합 중집위(함종호 도 부의장 참석)
4.29	사과주스 원액수입증지를 위한 해태본사 항의 투쟁(안동, 청송 등지에서 60여명 참가)
4.30	전농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우수군 표창 : 영덕군 농민회)
5.05	경산군 농민회 단합대회(오전 11시 갯바위)
5.07	제1차 도 선전분과위원회 회의
5.16	도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후 5시 도연맹사무실): 경산군 남산면 단합대회
5.18	광주항쟁계승 범국민 결의대회(오후 6시 대구역, 7명 참가)
5.21	안동 농민·학생한마당(오후 1시 안동대학교)
5.22	반미의 날 집회(오후 1시 경북대 민주광장, 도연맹 참석)
5.27	도연맹 사무실 이사
5.29	안동농민회 선전위원회 회의(오후 8시 사무실)
5.31	도 정책위원회 회의
6.01	영덕군 지품면 회원 수련회(오전 11시 용추폭포)
6.04	도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대경연합 정책강좌1(오후 7시 경북대 공대2

호관)	
6.09	제1차 도·농·학 연추회의(오후 2시 도연맹사무실)
6.10	6·10 기념집회(오후 6시 대구역, 경산 등 10여명 참석)
6.12~13	안동 일일차집
6.16	대경연합 정책강좌2(오후 7시 경북대)
6.17~18	전농 중집, 상집, 정책실 수련회
6.18	제2차 도 운영위원회(오전 12시 도연맹사무실): 도연맹사무실 이전개소식(오후 6시 도연맹사무실)
6.19	안동 농활동책교육(안동 농민회관)
6.24	봉화군 명호면 단합대회: 울진군 계명대 농활 시작
6.26	의성군 농활동책교육(오후 2시 농협회의실)
6.27	안동 길안면 농민회 단합대회(오전 10시 길안면)
6.28	전농-농협중앙회 간담회(오후 2시 농기협회관)
6.30	각 군 여름농활 발대식 및 시작: 대경연합 정책강좌3(경북대)
7.03	전농 신농정 수정요구 및 클린턴 방한반대 의장단 단식농성 돌입 및 기자회견: 영덕군 병곡면 회원교육(오후 6시 병곡면)
7.07	대경연합 정책강좌4(오후 7시 경북대): 봉화군 농민·학생 한마당: 상주군 공검면 농민·학생 한마당
7.08	각 군 농활 해단식 및 집회
7.10	신농정 수정요구 및 쌀수입 강요하는 클린턴 방한 반대 전국농민대회(낮 12시 30분 명동성당, 경북 80여명 참가)
7.14	경산군 농민회 회원교육(남산면 농협 60여명 참가)
7.16	제2차 도 선전분과위원회(오후 3시 도연맹사무실)
7.17	봉화군 회원 단합대회(오전 약수터 60여명 참가)
7.17~18	대경연합 정책강좌 수련회(5명 참가)
7.20	도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후 2시 도연맹사무실)
7.21~23	전농 회장단 연수회(대전 가농회관, 의성군 회장 참석)
7.22~23	도 선전전문교육(안동 농민회관, 20여명 참석)
7.26	안동 길안면 회원 기초교육
7.26~27	도 정책실, 교육분과위 연석수련회(봉화군 청량산, 30여명 참석)
7.28	울진군 농민회 회원 단합대회(30여명 참석)
7.31	의성군 회원 단합대회: 금릉군 회원 단합대회
8.02	제1차 도 집행위원회(오후 2시 도연맹사무실)
8.03	청송군 농민회 단합대회
8.06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8.08	긴급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전 10시 도 수련회 건, 9일로 예정되었던 도회원 수련회는 태풍관계로 무산됨)

8.13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전 11시 도연맹사무실): 도활동가 토론회(오후 1시 도연맹사무실)
8.14~15	범민족대회 참가(경북 15명 정도 참석)
8.17~18	전농 활동가 토론회(전주 이서개발원, 경북 7명 참석)
8.19	영주군 단합대회
8.20	성주군 단합대회: 경산군 용성면 회원 수련회
8.22	도 사무국 회의(오후 1시 도사무실)
8.26	도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후 1시 도연맹사무실): 전농 임시대의 원대회(오후 3시 서울 농기협회관)
9.02~03	도 운영위, 집행위 연석수련회(안동 농민회관, 50여명 참석): 상주농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9.05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오전 11시 도연맹사무실)
9.09~10	전농 사무국장단 수련회(이서개발원)
9.09	안동 예안면 농민회 창립
9.10	금릉군 남면 농민회 창립
9.18	남부지역 사무국장단 회의(오후 6시 도연맹사무실)
9.19	전국 통합의보쟁취 국민대회(오후 2시 장충단공원, 15명 참가)
9.21	전농 대토론회(오후 2시 청주대학교)
9.23	남부지역 활동가 간담회(고령군 농민회 오후 1시: 고령, 성주, 경산, 청도 지역 회원 20여명 참가)
10.07	서부지역 활동가 간담회(오후 1시 상주농민회: 상주, 선산, 문경, 금릉 등 20여명 참석)
10.15	제3차 도 운영위원회
10.22	도 강사개발 모임(오후 1시 도연맹사무실)
11.05	긴급도운영위원회(오후 1시 안동농민회 회의실)
11.13	서울상경투쟁(클린턴 방한 반대 및 신농정 전면 수정요구)
11.17	경북농민대회 관련 기자회견(오전 9시 도연맹사무실)
11.19	영덕군 농민대회
11.20	'냉해피해보상 및 신농정 전면 수정요구 93 경북농민대회'(11시 김천시 황금동 시장)
11.26	도-금릉농민회 연석회의(도대회 평가)
11.30	도 긴급운영위원회(오후 2시 도연맹사무실)
12.01	영덕군 병곡면 벼적재 투쟁
12.02	안동농민대회(안동 신시장)
12.03	대구·경북지역 제시민, 사회단체장 간담회(오후 2시 도연맹사무실 - 수개방 저지 비상대책위 결성건)
12.04	고령군 농기계 반납투쟁

12.05	범시도민 비상대책위 소위원회 회의(오전 11시 도연맹사무실)
12.06	비상대책위 대표자 회의(오전 8시 도연맹사무실): 비상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오전 9시 도연맹사무실)
12.07	비대위 서울대회(오후 2시 서울역 광장: 경북 300여명 참석)
12.08	비대위 집행위원회 회의
12.10	영주 영풍 농민대회(오전 11시 원당 고추시장)
12.11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철회촉구 범시도민 쫓겨대회'(오후 1시 대구 백화점 앞, 1,000여명)
12.12	봉화군 농민대회(오전 11시 농협 앞, 300여명 참석)
12.13	경산군 농민대회(오전 11시 경산시장 앞)
12.14	영양 농기계 반납투쟁: 영덕 남정면 농기계, 토지문서 반납투쟁
12.15	도 긴급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낮 12시 도연맹사무실): 청송 차량시위 및 선전전
12.16	제2차 비상대책위 집행위원회 회의(오전 11시 도연맹사무실)
12.17	선산군 농민대회: 의성군 농민대회: 상주군 농민대회
12.18	비대위 제2차 범시도민 쫓겨대회(오후 2시 동성로)
12.19	고령군 농민대회(오전 10시 국악당, 4개 농관련단체연합주최)
12.20	'수개방 압력 반대' 대구 미문화원 기습시위(오후 2시 50여명 참가): 안동 길안면 총회
12.22	성주군 농민대회(오전 11시): 대·경 비대위 제3차 집행위원회(오전 11시 도연맹사무실)
12.24	경산군 농민회 차량시위: 영주, 성주, 안동 등 선전전
12.26	경산군 와촌면 농민회 총회
◆ 1994년 활동	
1.03	1월 15일 노동자·농민대회 기획회의
1.05	대·경 비대위 신년회 모임(낮 12시 도연맹사무실: 비대위 참가단체 대표 50여명 참석)
1.06	제4차 도 운영위원회(오후 1시 도연맹사무실)
1.07	경산군 용성면 총회
1.10	영덕군 총회(오후 2시 군농촌지도소)
1.14	노동자·농민대회 기자회견(오전 9시 도연맹사무실)
1.15	'노동자·농민대회'(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 700여명 참가)
1.18	고령군 농민회 총회(오전 11시 농협 2층)
1.20	경산 와촌군 농민회 사무실 개소식
1.21	도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1.26	의성군 농민회 총회(오전 10시 농협): 함창읍 농민회 창립총회(오후 1시)

- 1.27 경산군 농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 1.31 경북 여성농민회 총회(오전 11시 대구교대 앞)
- 2.01 전국농민대회(오후 2시 서울 대학로, 경북 400여명 참가)
- 2.05 대구 비대위 거리문화제
- 2.15 청송군 농민회 총회
- 2.16 제5차 도운영위원회 회의(오후 1시 안동농민회사무실)
- 2.17 안동농민회 총회
- 2.18 성주군 농민회 임시총회(저녁 8시 농민회사무실)
- 2.19 전농 대의원 대회(오후 2시 건국대학교, 경북 17명 참석)
- 2.20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경북 7명 중 4명 참석)
- 2.25 봉화군 농민회 총회: 경산군 농민회 총회
- 2.27 도 총회준비소위원회
- 2.28 예천군 풍양면 농민회 총회: 금릉군 농민회 총회
- 3.01 제2차 도 집행위원회 회의
- 3.05 대·경연합 대의원 총회
- 3.06 도연맹 감사
- 3.07 제5차 전농 경북도연맹 대의원 총회(경북대 구학강당)
- 3.13 전국연합 대의원대회(경희대 크라운관)
- 3.15 도연맹 이사
- 3.17 경북도청 농발위 간담회(도청강당): 상주농민회 총회
- 3.21~22 전농 사무국장단 수련회(이서개발원): 안동, 상주 운영위원회
- 3.25 전국 농·학 연추위 회의
- 3.28 영일 청하면, 울진 기성면 핵폐기장 건설반대 투쟁지원 방문
- 3.29 영양군 총회
- 4.02 의성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제1차 도 운영위원회
- 4.09 범대위 전국동시다발 집회(대구역)
- 4.14 전농 중·상집위 회의: UR 모로코 의정서 날인 규탄 성명서 발표
- 4.19 봉화군 농민회 사무실 기공식
- 4.20 도연맹 간부 임원단 수련회(안동 농민회관): 경산군 상집위 회의
- 4.22 안동 범대위 초청강연회
- 4.26 전농 조통특위 회의
- 4.28 전농 지자제 특위 교육
- 4.29 전농 창립총회(안동농민회 모범군 수상)
- 4.30 노동절 기념 노동자 집회: 안동농민회 동학100주년 기념 초청공연: 의성군 운영위원회: 금릉군 운영위원회
- 5.05 안동 중앙위 회의: 의성, 안동, 봉화 봄농활 시작
- 5.13 전농 3차 중·상집위(대전 가농회관)

- 5.13~15 봄농활 수행
- 5.17 제2차 도 운영위원회 개최(안동농민회 사무실): 광주항쟁계승 14주년 국민대회(대구백화점)
- 5.20 전농 조국통일 특별위원회 회의(대전 한남대): 제1차 조직교육위원회회의
- 5.23 전농 비상중집위: 고령군 농민회 단합대회
- 6.03 경산농민회 운영위원회
- 6.04 UR 국회비준거부 복구대책위 출범식(칠곡)
- 6.07 전농 중앙정책회의
- 6.09 고령농민회 운영위원회
- 6.10 국회의원 소환 경산대책위 출범식(경산시장)
- 6.11 UR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경북농민 비상결의대회(경북대): 2차 도 농·학 연추(경북대 농대)
- 6.14 전농 중·상집위
- 6.15 도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도연맹사무실): 영덕 지품면 단합대회(용추계곡)
- 6.17 봉화군 농민회 사무실 준공식: 성주농민회 운영위원회
- 6.19 영주농민회 일일주점
- 6.20 UR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비상결의대회(서울 여의도)
- 6.29 여름 농활 실시
- 7.03 영덕농민회 사무실 기공식
- 7.07 여름 농활 마칩
- 7.11~12 경북도연맹 상반기 활동가 교육(안동 농민회관)
- 7.12 제3차 도 운영위원회(안동 길안천)
- 7.14~15 전농 회장단 수련회 및 전농 중앙위원회(대전 한남대)
- 7.21 김천농민회 단합대회: 청송군 농민회 단합대회
- 7.23 영주군 농민회 단합대회
- 7.25 의성군 농민회 단합대회
- 7.26 고령군 우곡면 농민회 단합대회: 봉화군 재산면 농민회 단합대회
- 7.27 전농 중집위(전북도연맹): 예천군 농민회 단합대회
- 7.29 선산군 농민회 단합대회
- 8.08~09 도연맹 회원 수련회(월포국민학교)
- 8.13 안동군 길안면 단합대회
- 8.14~15 범민족대회(서울대)
- 8.17 대·경연합 가맹단체 수련회: 영덕군 농민회 단합대회
- 8.22~27 전농 장기교육
- 8.30 영주농민회 한농 향의 상경투쟁
- 8.31 봉화군 농민회 단합대회
- 9.01~03 전농 농협 이, 감사 교육

9.07	김천 감문면 농민회 창립대회
9.09	제4차 도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9.10	대·경연합 수련회(동명수련원)
9.30	전농 일꾼수련회(대전 한남대)
10.01	영천농민회 사무실 개소식
10.07	전농 중집위원회
10.11	제2차 도연맹 긴급운영위원회(안동)
10.17	안동농민회 운영위원회
10.19	도 대회관련 선전회의
10.24	도 대회관련 유인물 제작, 배포
10.27	도연맹, 안동농민회 연석회의(도대회 관련)
11.03	전농 중앙집행위원회
11.04	도연맹 집행위원회(안동농민회)
11.08	도 대회관련 기자회견(안동농민회)
11.12	경북농민대회(안동 신시장)
11.29	전국농민대회(서울 보라매공원)
12.01	영천농민회 집회(임고면)
12.04	도 긴급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12.07	선산군 군청 향의 방문
12.08	전군 동시다발 집회
12.14	영덕군 농민회 차량시위
12.23	제5차 도연맹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도연맹 UR투쟁 보고회 및 송년의 밤: 의성군 점곡면, 다인면 총회
12.28	경북여성농민회 총회: 의성군 농민회 총회
◆ 1995년 활동	
1.07	선산군 군민회관 앞 시위
1.11	울진군 농민회 총회
1.12	김천농민회 총회: 봉화 불량비닐 피해보상을 위한 상경투쟁
1.13	우리쌀 지키기 대·경비상대책위원회 일일주점
1.14	영덕군 농민회 총회
1.17	안동농민회 총회: 영주농민회 총회
1.19	고령군 농민회 총회
1.20	상주농민회 시단협 향의 방문
1.23~27	전농 장기교육(경북 5명 참가 : 이서개발원)
2.06	제6차 도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2.16	전농 대의원 총회(단국대 학생극장)

2.19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동국대 중 강당)
2.22	도연맹 감사: 청송군 농민회 총회: 상주군 농민회 총회: 봉화군 농민회 총회
2.23	제6차 도 대의원 총회(경북대 구학강당)
3.08	의성군 운영위원회
3.10	전농 중앙상무, 상집위 연석회의(전농사무실)
3.16	김천농민회 운영위원회
3.18	고령군 농민회 골프장반대집회(국악당)
3.22	전국 농·학 연추회의
3.23	고령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3.28	청송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3.30	안동농민회 운영위원회: 경산시 와촌면지회 재창립 총회
3.31	도연맹 제1차 간부활동가 교육(안동 농민회관): 전농 상임집행위원회(대전)
4.06	도연맹 의장단,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경북도 농어촌 발전심의회(도청)
4.07	대·경연합 중·상집위 연석회의
4.09	김천농민회 운영위원회 회의
4.10	도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 영덕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4.11	안동농민회 운영위원회
4.12	전농 지자체 교육(목포)
4.13	영천시 농민회 총회
4.14	전농 중앙상무위: 청송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의성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4.15	김천농민회 영농발대식
4.17	구미농민회 영농발대식
4.18	경산 농민대회 및 현판식: 고령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상주농민회 운영위원회
4.20	영주농민회 운영위원회
4.23	95년 전국농민대회(경희대)
4.24	전농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경희대)
4.27	제2차 도연맹 운영위원회: 제1차 도·농·학 연추위 회의(경북대)
4.30	안동농민회 운영위원회
5.02	제2차 도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5.04	제2차 도 선전분과위원회 회의
5.09	영덕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5.11	김천농민회 운영위원회
5.12	구미농민회 운영위원회: 경산농민회 회원교육
5.16	도연맹-영주시 농민회 간담회

6.01	도연맹-고령군 농민회 간담회
6.05	도 선전분과위 수련회(경산 상대온천)
6.08	전국 농·학 연추회의
6.10	김천농민회 운영위원회: 고령 골프장 저지 군민결의대회(국악당)
6.14	제2차 도 농·학 연추위
6.16	안동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7.01	김천시 농민회 수련회(부항면)
7.02	도 의장단, 정책실, 사무국 연석회의(도연맹사무실)
7.03	제3차 도 운영위원회(도연맹사무실)
7.04	여름농활
7.06	제3차 도 선전분과위원회 회의
7.14	도 정책위원회 개최(안동)
7.19	전농 중앙위원회(건국대)
7.26	영천시 농민회 회원교육
7.31	전농 통일일꾼 수련회
8.02	지역 통일순례단 활동
8.05	대구·경북 통일축전(경북대)
8.08	제2차 간부활동가 교육(농협연수원)
8.09	청송군 농민회 회원교육
8.12	안동농민회 수련회(길안)
8.18	울진군 농민회 회원 단합대회(평해 월송정)
8.21	영천시 농민회 회원 단합대회(임고)
8.22	전농 중·상,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
8.23	제4차 도 운영위원회(길안): 상주시 농민회 사무실 개소식: 영덕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8.25	의성군 농민회 단합대회
8.28	전농 농협 이·감사 교육
8.29	도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3차 회의
9.05	전국 농·학 연추위: 전국 고추불량종자 피해 대책위 기획회의(충남대)
9.06	전국 잎담배 생산자회 총회
9.15	도연맹 정책위원회
9.18	도연맹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9.20	상주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9.25	김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안동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9.26	영덕군 농민회 수련회
9.27	도연맹 투신활동가 간담회: 고령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9.28	불량고추씨 관련 흥농종묘 항의 및 농성 돌입: 도연맹 제4차 조직강화특

9.30	별위원회
9.30	의성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5·18 관련자 기소촉구 국민대회
10.05	전농 중앙상임위원회
10.06	도연맹 정책위원회
10.09	김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0.12	만남고추 2차 상경투쟁
10.14	제5차 도 운영위원회: 농촌 의료보험 실태조사서 배포
10.21	상주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0.25	도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10.27	영덕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10.31	상주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1.01	청송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11.03	고령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11.08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상임정책위원회 연석회의(서울)
11.13	상주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김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1.14	영덕군 농민회 운영위원회
11.16	김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1.21	의장단 경북도지사, 농협 도지부 면담
11.27	경북농민대회(상주)
11.30	의장단, 사무국 연석회의
12.04	영덕군 농민대회
12.11	안동시 농민대회
12.14	상주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2.15	의성군 농민대회
12.16	도연맹 긴급운영위원회(안동)
12.18	영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2.21	'사과가격보장을 위한 경북농민대회'(경북대)
12.22	전농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 구미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12.23	사과대회관련 경북도청 규탄 성명발표
◆ 1996년 활동	
1.03	상주시 농민회 총회
1.06	제6차 도 운영위원회
1.10	안동시 농민회 총회
1.12	도 대의원대회 준비소위: 청송군 농민회 총회: 구미시 농민회 총회
1.15	성주군 농민회 총회: 의성군 농민회 총회
1.16	흥농종묘 규탄 투쟁: 안동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상주시 농민회 운영위

	원회
1.17	고령군 농민회 총회
1.18	도연맹 감사
1.19	7기 도 대의원 대회(97명 참가)
1.27	제1차 의장단, 정책실, 사무국 연석회의
2.01	전국농민대회(519명 참가) : 흥농종묘 본사 진격투쟁
2.05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
2.08	제1차 도연맹 운영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2.13	전농 6기 대의원 대회 참가(14시 단국대학교, 26명 참가)
2.23	사무국 수련회
2.29	제1차 집행위원회
3.09~10	제1차 도연맹 간부활동가 교육(70명 참가)
3.11	제2차 사무국 회의
3.18	제1차 정책위원회(12시 도연맹 사무실 5명 참석) 안건 : 1) 도정책위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2) 작목별 투쟁 3) 당면 현안투쟁의 건
3.21	도청 면담
3.22	제2차 의장단,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의성)
3.28	경북도 농발위(13시 도청)
3.31	제1차 도·농·학 연추
4.10	제3차 사무국 회의
4.13	제2차 운영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4.14	제2차 도·농·학 연추(14시 도연맹사무실)
4.18	제2차 정책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5명 참석) 안건 : 1) 총선투쟁 평가 2) 마늘 대책의 건 3) 지역현안 투쟁의 건
4.24	전농 6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4.26	제2차 집행위원회
5.02	봄 농촌활동 시작: 사과발전협의회(15시 경북대)
5.04	도연맹-울진군 농민회 간담회
5.07	제4차 사무국 회의
5.12	96 쌀 증산시책 농민 대토론회(10시 도청, 18명 참가)
5.15	도연맹-김천시 농민회 간담회
5.16	제3차 정책위원회(20시 의성군 농민회 사무실 6명 참석) 안건 : 1) 민족민주운동의 전선재편 논의

	2)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논의
	3) 제도 정치위원회에 관하여
5.18	5월 민중항쟁 16주년 대회
5.29	제5차 사무국 회의
6.04	농협 '환경농업 교육원 개원식'(11시 경주)
6.09	제3차 도·농·학 연추(12시 경북대)
6.12	제3차 운영위원회: 도연맹-영덕군 농민회 간담회
6.25	제4차 정책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7명 참석) 안건 : 1) 제도 정치위원회에 대하여
6.30	의료보험통합 투쟁 '한겨레 광고'
7.01~09	여름 농활
7.02	제6차 사무국 회의
7.09	쌀 연구회(13시 경북대)
7.11	제7차 사무국 회의
7.15	제5차 정책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7.16	제3차 집행위원회(14시 사무실, 15명 참석)
7.18	전농 중앙위원회(10명 참가)
7.23	사무국, 정책실 수련회(의성군 옥산면, 15명 참가)
7.25	도청, 농협, 능금조합 방문
7.31	제2차 간부활동가 교육(농협연수원, 96명 참석 : ~8월 1일)
8.06	제8차 사무국 회의
8.10	평화통일 대구·경북대회 참가(두류공원 40여명)
8.12	제9차 사무국 회의
8.20	제1차 운영위, 집행위원회 연석회의(안동 길안, 30여명 참석)
8.22	식용쌀 수입저지 경남·경북농민대회(부산역, 60여명 참가)
8.24	한총련 탄압 규탄대회(17시 대구백화점 앞)
8.26	제10차 사무국 회의
8.27	경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심의회: 도연맹 농협 이, 감사 교육(상주산업대 수련원 :~28일)
9.01	도보행진 시작
9.07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19시 사무실)
9.10	의보통합 쌀자급실현 전국농민대회(여의도, 350여명 참가)
9.20	흥농종묘 파산투쟁 전국농민 대표자 대회(흥농종묘 본사 앞, 10명 참가)
10.07	제11차 사무국 회의
10.08	제6차 정책위원회(12시 도연맹 사무실) 안건 : 1) 전국도보행진, 9·10대회 평가 2) 하반기 농민투쟁 방향에 대하여

3) 경북 농민운동의 조직적 과제	
10.09	제4차 집행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11명 참가)
10.28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20시 도연맹사무실): 경북도 농촌발전심의회 (14시 도청)
10.30	제4차 운영위원회
11.06	북부지역(안동, 봉화, 영양, 영주, 청송) 대표자 회의(21시 안동농민회사 무실)
11.08	쌀주산지(구미, 김천, 상주, 의성) 대표자 회의(20시 상주농민회 사무실)
11.11	농업인의 날 성명서 발표
11.12	도연맹 사무국-영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20시 영천)
11.14	농업인회관 기공식
11.16	전농 작은자리
11.18	경북농민대회 준비위(20시 영천)
11.20	도연맹-안동 길안면 간담회: 도연맹-안동 예안면 간담회
11.23	도연맹-상주 모동면, 사벌면 간담회
11.25	의장단,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
11.26	제2차 운영위,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11.27	전국여성농민대회
12.07	"쌀수매가인상 및 통합의료보험 생취를 위한 96 경북농민대회"(영천, 100여명 참가)
12.11	경북농민대회 폭력진압 규탄 선전전(16시 영천시내 전역)
12.12	경북농민대회 규탄 및 농민 결의대회(11시 영천역 앞)
12.13	"쌀수매가인상과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2차 전국농민대회"
12.16	도지사 면담
12.18	비상 운영위원회(12시 영천)
12.26	의장님 대구지검 송치
12.27	의장님 출소(기소유예)
◆ 1997년 활동	
1.11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 1차 국민대회
1.12	의장단, 사무국, 정책실 연석회의(18시 도연맹사무실)
1.13	제6차 운영위원회(13시 도연맹사무실)
1.18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 2차 국민대회
1.24	제7차 정책위원회(12시 도연맹사무실) 안전 : 1) 도연맹 96년 사업평가 2) 도연맹 97년 사업방향
1.28	전농 6기 2차년도 대의원 대회(13시 단국대학교, 23명 참석)

1.30	도연맹 대의원 대회 1차 준비소위(12시 도연맹사무실)
1.31	제4차 도·농·학 연추(12시 도연맹사무실)
2.11	대의원 대회 2차 준비소위: 7기 도연맹 감사
◆ 1998년 활동	
2.10	도연맹 8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11시, 농업인회관): 김천시 농민회 운영 위원회
2.17	전농 7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 중앙 상무위원회(13시, 농업중앙회)
2.19	도연맹 1차 의장단, 사무처, 정책실 연석회의: 상주시 농민회 회원교육 (13시, 농협시지부)
2.24	도연맹 성명서 - 김대중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도연맹 1차 간부활동 가 교육(14시, 농업인 회관): 청송군 농민회 정기총회 및 교육
2.27	영천시 농민회 운영위원회
3.01	전농 중앙 상무·상집·상정 연석회의: 전국연합 대의원대회(14시, 성북 구민회관, 3명 참석)
3.02	안동시농민회 사무국·정책위 연석회의
3.04	상주시농민회 회장단·사무국 연석회의
3.06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3.07	구미시농민회 월례회
3.09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도연맹 의장단 사무처 정책실·농협지역본 부간담회(5명 참석): 경북 테크노파크 공청회(10명 참석)
3.11	전농 의장단, 회장단 연수 및 간부대토론회(농협중앙회 창녕연수원, 경북 41명 참가)
3.14	도연맹 2차 의장단, 사무처, 정책실 연석회의: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고령군농민회 임시총회(20시, 회장: 석성만 부회장: 서윤발, 김병희 사무 국장: 최병렬) 의장 참석
3.16	도연맹 1차 정책위원회
3.17	도연맹 운영위원회(13시, 19명 중 15명 참석)
3.23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집행위 연석회의(10시, 사무실)
3.26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경북농업인단체 공동기자회견(9시, 농업인회관):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3.2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의성 영농발대식(10시, 마늘시장, 500여명, 의장 참석): 성주군 농민회 확대회의(20시)
3.28	경북농업인단체 간담회(13시, 농업인회관): 청송군농민회 회원교육(10 시, 진보농협, 170여명 참가)
3.30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20시, 사무실, 정책실장 참석)
4.01	경북도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회(14시 도청, 의장 참석):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북농업인단체 간담회(11시, 농업인회관): 대경연합조직발전을 위한 토론회(19시, 연합, 의장 참석)
4.02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4.03	청송군농민회 회원교육(10시, 진보농협)
4.04	영양군농민회 선전전
4.06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북농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11시, 농업인회관): 성주군농민회 정기총회(20시, 회장: 노병식, 부회장: 김수영, 최진국, 사무국장: 이상준) 사무처장 참석.
4.07	안동시농민회 영농발대식: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영농발대식
4.09	도연맹성명서('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보장과 이적단체규정 철회를 촉구한다')
4.10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4.11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북농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차 대표자 회의: 울진군농민회 선전전
4.14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4.15	'농가부채해결과 농정과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1차 경산농민대회(11시, 경산시장, 100여명 참가)
4.17	전농 중앙상임정책위원회: 도연맹 1차 교육부장 연석회의
4.18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북농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3차 대표자 회의(14시, 농업인회관)
4.20	도연맹 1차 집행위원회(13시, 사무실, 20명 중 11명 참석):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4.21	전농 중앙상임집행위원회
4.23	전농 조직교육위원회
4.24	전농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및 임시중앙위원회(13시, 농업기술진흥관, 경북 6명 참가): 도농학연추 실무회의(22시, 경기대)
4.28	도연맹 성명서('동아건설은 반사회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스스로를 개혁하라!')
4.29	고령군농민회 영농발대식(9시, 국악당 앞, 100여명 참가, 의장 참석):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4.30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5시, 사무실)
5.01	중앙 상무위원회
5.02	봄농촌활동
5.07	도연맹 민간부 교육(14시, 농업인회관, 21명 참석)
5.08	도연맹 4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2시, 사무실): 대경총련 출범식(경북대 19시, 의장 참석)

5.10	의성군농민회 '제 3회 가정의달맞이 어버이와 함께하는 글쓰기그림그리기 잔치'(10시, 공설운동장)
5.12	구미시농민회 '대통령 농정공약이행 촉구 및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구미농민대회'(9시, 300여명 참가)
5.21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5.22~23	전국 상근 실무자 수련회(대전 동학사, 경북 3명 참가)
5.26	전농 중앙상임정책위원회
6.03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대경연합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14시, 연합사무실)
6.04	전농 중앙상임집행위원회
6.08	도연맹 5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2시, 사무실)
6.09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6.11	지역농정 학술세미나(10시, 경북대, 토론자: 의장, 천호준 부의장): 고용안정·민중생존권 사수·재벌개혁·IMF대응을 위한 대구·경북대책위 결성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14시, 대경연합)
6.12	영양군농민회 수비면지회 단합대회 및 신암분회 창립(10시, 자연휴양림 100여명, 권태준 부의장 참석): 전국 농민학생 연대사업추진위원회(15시, 충북대)
6.14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6.16	도연맹 2차 운영위원회(13시, 사무실, 19명 중 13명 참석)
6.17	1차 도농학연추(14시, 사무실)
6.19	봉화군농민회 총회(회장: 박광수, 사무국장: 차동철)
6.20	경북 농가부채 공대위 4차 대표자회의(11시, 농업인회관)
6.22	전농 중앙 상임집행위·상임정책위 수련회(대전 동학사)
6.23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6.26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
6.27	김천시농민회 회원교육(20시, 농소면 사무소, 사무처장 참석)
6.29~7.07	여름농활
6.29	도연맹성명서('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지개발조합을 통폐합하라!')
7.03	영덕군농민회 수련회(옥계계곡)
7.07	영양군농민회 수련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10시, 김마산자연휴양림, 사무처장 참석):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
7.09	심포지엄('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수리사업 관련 기관조직의 발전방향', 경북 2명 참석): 중앙상무위원회
7.10	전농 중앙 상임정책위원회
7.10~11	도농학연추 여름농활 평가 수련회(의성 전흥 청소년 수련원, 25명 참석)

7.17	중앙 상임집행위원회
7.18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7.20	도연맹 6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7.21	도연맹 2차 정책위원회(13시, 사무실, 13명 중 7명 참석)
7.22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21시, 사무실)
7.23	도연맹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연석회의(13시, 구미 의장님 집, 37명 중 28명 참석):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7.24	상주시농민회 '경북대 농활교육'
7.26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천시농민회 단합대회
7.28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경남도대회(13시, 창원, 경북 30여명 참가)
7.30	전농 7기 1차년도 중앙위원회(14시, 농협중앙회, 경북 34명 참석)
8.03	도연맹 7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8.04	의성군농민회 수련회(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8.06~07	도연맹 2차 간부활동가 교육(농업인회관)
8.07	성주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8.08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8.09	민족의 자주·평화·대단결을 위한 시도민통일한마당(15시, 대구백화점 앞, 의장 참석)
8.10	전농 상무위·상임집행위원회·상임정책위원회 연석회의(14시, 농업기술진흥관)
8.12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18시):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8.17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8.18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사무처장 참석)
8.20	도연맹 8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8.21	전농 부채대책위원회(20시, 충청도연맹, 의장, 사무처장 참석)
8.23	도연맹·봉화군농민회 순방 간담회(사무처장, 조직국장 참석)
8.24	전농 중앙상임정책위원회
8.25	도연맹·영양군농민회 순방 간담회(사무처장, 조직국장 참석)
8.26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중앙상무위·상집위 연석회의(의장, 사무처장 참석): 도연맹 성명서('김대중 대통령은 수해지역을 시찰하고, 특단의 재해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8.27	남부지역 농협전문교육(경산, 영천: 20시, 경산외촌농협, 20명 참석): 재해대책추구 경북 중·북부지역 농민회 기자회견(MBC, KBS, 내일신문, 9시, 안동시농민회 사무실, 천호준 부의장, 의성·안동·상주·청송 회장 참석): 농업·농촌기본법(안) 토론회(14~16시 농업인회관, 천호준 부의장 참석)
8.29	재해대책 관련 도지사면담(11시, 도청, 의장, 천부의장, 사무처장, 실장,

8.30	조직, 안동·의성·상주 회장 참석) 울진군농민회 단합대회·도연맹 간담회(사무처장, 조직국장 참석): 영덕 병곡면지회 단합대회(사무처장, 조직국장 참석)
8.31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9.01	성주군농민회 운영위원회(의장 참석)
9.02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북농민단체 공동대책위 5차 대표자회의(11시, 농업인회관): 도연맹 2차 집행위원회(13시, 사무실, 20명 중 12명 참석): 집행위·전농 의장단 간담회
9.03	남부지역 농협교육(1차, 경산 외촌농협의실):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9.05	구미시농민회 월례회(20시, 사무실):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9.07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청송군농민회 운영위원회
9.08	도연맹 9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성주군농민회 교육: 의성군농민회 확대간부회의
9.10	남부지역 농협교육(3차): 안동 길안면 농민대회(10시, 길안면사무소앞):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20시 30분): 영덕군농민회운영위원회
9.11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문화엑스포 개막식(경주, 의장 참석): 도연맹 10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9.15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농축산물가격보장을 위한 98 전국농민대회(13시, 보라매공원)
9.21	전농 중앙상임정책위원회
9.27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9.28	도연맹 11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9.29	도연맹 운영위원회(13시, 사무실, 19명 중 10명 참석)
9.30	도연맹 성명서('대통령이 경제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농가부채대책안은 500만 농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10.01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구미시농민회 고아읍지회 창립총회(10시, 고아농협의실, 60여명 참석)
10.02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0.08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신임 진흥원장·농민단체장 간담회(11시, 농업인회관, 의장 참석)
10.09	중앙상무위원회: 전농 농정개혁토론회
10.13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0.15	영천시농민회 회원교육
10.16	도연맹성명서('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농가부채 합의안을 반대한다)

10.17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0.19	도연맹 12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2시, 사무실)
10.21	중앙 상임정책위원회
10.23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0.26	민중대회 준비회의(12시, 연대와 전진을 위한 회관, 조직국장 참석)
10.30	도연맹 운영위원회(13시, 사무실, 확대간부회의 39명 참석) 안건 : 1) 농가부채투쟁 향후 계획 2) 민중대회 3) 전농의 진로에 대하여
11.03	중앙상무위·경북운영위 간담회(16시, 경북농업인회관)
11.05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상주시농민회 회장단·사무국 간담회(20시, 상주시무실)
11.06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19시, 사무실)
11.07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08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1.10	상주시농민회 확대간부회의(20시, 사무실, 35명 참석): 안동시농민회 하투찾집(전통찾집 '우리마당'): '98 전국민중대회(14시, 여의도 한강둔치, 3만여명 참가, 경북 20여명 참가)
11.13	도연맹 13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9시, 사무실): 도연맹 사무처·도농정국장 간담회(수해피해 보상관련)
11.16~21	도연맹 임원 1차 지역순방(도대회 관련)
11.15~17	김천시농민회 회원교육(18시, 감천면사무소, 의장, 사무처장 참석)
11.17	대경연합 중집(14시, 연합사무실, 사무처장 참석)
11.19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농축산물가격보장을 위한 고령군농민대회(10시, 200여명):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정책실장 참석): 경산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사무처장 참석):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의장 참석)
11.20	3차 집행위원회(13시, 상주시농민회 사무실, 21명 중 12명 참석)
11.21~22	전농 작은 자리
11.23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2차 지역순방(주요지역 면지회 순방)
11.24	도대회 준비회의(19시, 상주농민회)
11.25	중앙상정위원회
11.26	중앙상집위원회: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천호준 부의장, 정책실장 참석)
11.27	도대회 운영위·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19시, 상주농민회): 영덕군농민회 운영위원회(천호준 부의장, 정책실장 참석)

11.28	대구·경북 노동자대회
11.30	도연맹 성명서('5백만 농민 기만하는 농가부채대책 무효화하고, 졸속적인 부채대책 시행 즉각 중단하라')
12.01	중앙상무위원회
12.02	농가부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수해피해 보상! 98 경북농민대회(상주 풍물시장, 11시)
12.08	도연맹 14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12.10	도연맹 성명서('농가부채 심사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11	양심수를 위한 시회 노래의 밤(19시, 경북대, 의장 참석): 도연맹 15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12.12	98 대구·경북 민중대회(의장, 천호준 부의장, 정책실장 참석)
12.16~1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농민대표자대회 상경투쟁(24명 전원연행, 불구속 7, 즉심 6): 상주시농민회 국민회의, 시청 향의 농성
12.19	중앙 상무위·상집위 연석회의
12.22	도연맹 16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김천시농민회 정기총회
12.23	도연맹 6차 운영위원회(12시, 사무실, 19명 중 11명 참석) 안건 : 1) 경북농민대회·부채투쟁 평가 및 향후 계획 2) 전농 조직현황과 관련하여
12.28	구미시농민회 정기총회(회장: 김철근, 부회장: 이근춘, 김창섭, 사무국장: 김동환)
◆ 1999년 활동	
1.04	중앙상무위원회
1.05	중앙상임정책위원회
1.08	도연맹 17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2시, 사무실)
1.11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대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신년회(19시, 연합, 석성만 부의장 참석)
1.12	안동시농민회 정기총회(10시, 농협, 회장: 천정욱, 부회장: 하용락, 전중렬, 사무국장: 장휘수, 의장 참석)
1.13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5	도연맹 운영위·집행위 연석회의(13시, 의성 농협시지부 회의실, 36명 중 22명 참석)
1.19	전농 토론회(14시, 농협 안성농업지도자 교육원, 경북 11명 참석)
1.22	상주시농민회 정기총회(13시, 농협시지부 회의실) 및 사무실 개소식(16시, 의장, 권태준 부의장 참석): 영양군농민회 정기총회(10시, 농협군지부, 회장: 김동운, 부회장: 구용덕, 이상천, 사무국장: 권세현)

1.25	도연맹 18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1시, 영천): 영천시농민회 정기총회(14시, 농협, 회장: 이중기, 부회장: 이창주, 손수영, 사무국장: 최원복) - 의장, 천호준 부의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참석
1.27	의성군농민회 정기총회(10시, 농협, 회장: 김병욱, 부회장: 김부수, 김선환, 김광원, 사무국장: 김재결) - 의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참석
1.30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사무실 - 사무처장 참석): IMF 신탁통치 반대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99 민중연대투쟁 결의대회(15시, 동대구역 - 천호준 부의장 참석)
2.03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2.04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전농중앙상무위원회
2.07	전국 연합 8기 대의원대회(14시, 동국대학교 중강당, 경북 4명 참석): 안동시농민회 비상운영위원회: 구미시농민회 월례회
2.08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2.09	도연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13시, 사무실)
2.10	고령군농민회 정기총회(10시, 회장: 석성만, 부회장: 서윤발, 박규이, 사무국장: 박태경): 전농 중앙 상무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
2.18	도연맹 감사(13시, 사무실):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2.22	경산시농민회 정기총회
2.23	도연맹 9기 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11시, 농업기술원 강당, 146명 중 82명 참석) 임원선출 - 의장: 김실경, 부의장: 장규상, 고석인, 손병국, 감사: 천호준, 권태준, 김해열, 사무처장: 전성도, 정책실장: 임극호
2.25	전농 7기 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14시, 천안 단국대)
3.02	도연맹 의장단·농협본부장 간담회(14시, 농협)
3.03	농협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비상농민 대표자 대회(14시, 농협중앙회)
3.04~05	영천시농민회 간부수련회(1박2일 경북대 구룡포수련장, 24명 참가): 영천시농민회 농협시지부장 면담: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3.05	대경연합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14시, 연합사무실, 의장 참석)
3.06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4시, 사무실): 의성군농민회·농협(군지부장, 단위조합장) 면담
3.07	구미시농민회 월례회
3.08	경북 농민단체대표자 간담회(11시, 농업인회관, 7개 단체 참석)

3.09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상주시농민회·농협(시지부장, 단위조합장) 면담
3.10	도연맹 1차 운영위·집행위 연석회의(12시, 도연맹 사무실):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사무실)
3.11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3.12	도연맹 상임정책위원회(14시, 도연맹 사무실): 대경연합 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14시, 연합): 청송군농민회 대중강연회
3.13	의성군농민회 신입회원 교육(~14일, 1박2일): 울진군농민회 정기총회(19시):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3.15	농협·영천시농민단체(농민회, 경영인연합회, 새농민회) 간담회(10시)
3.16	대경연합 8기 대의원대회(18시, 연대와 전진을 위한 회관 강당):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5시, 사무실): 상주시농민회 회원교육
3.18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 대회(14시, 농협중앙회)
3.22	구미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해결 선전전(7시, 선산시장)
3.23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20시, 사무처장 참석): 대경연합상임집행위원회(11시, 연합사무실, 사무처장 참석): 도연맹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 설명회' 피켓시위(14시, 농업인회관 강당, 300여명 참석, 20여명 시위)
3.24	농민단체 도대회 준비위원회(13시,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3.27	도연맹 2차 집행위원회(12시, 사무실)
3.29	안동시농민회·농협시지부 공동주최 '협동조합 개혁 토론회'(14시, 농협시지부)
3.30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4.01	도연맹 상임정책위원회(13시, 사무실):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5시, 사무실):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20시)
4.02	영천시농민회 영농발대식(10시, 수덕예식장 앞, 60여명 참가)
4.03	미국의 IMF 경제침탈, 전쟁책동 반대 및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14시, 동성로, 의장 참석)
4.05	경북농민대회 준비위원회(15시, 농업인회관)
4.07	농정공약 이행촉구 및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99 경북농민대회'(12시, 대구백화점 앞)
4.09	고령군농민회 읍지회 창립대회(20시, 잔치집 식당): 4·9 통일열사 24주기 추모제(13시, 경상감영공원): 협동조합개혁토론회(13시, 농협중앙회)
4.10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4.13	청송 핵폐기장 건설반대 쫓겨대회(10시, 진보삼거리)
4.16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4.20	경북도 협동조합 개혁 설명회(14시, 도청, 손병국 부의장 참석)
4.21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4.22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4.24	전농 창립 9주년 기념행사 및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해결, 농정공약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13시, 대학로, 50명 참가): 민중생존권·사회개혁 쟁취, IMF를 반대를 위한 노동자·농민 연대 결의대회 및 민중연대한마당(17시, 명동성당)
4.27	대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4.30	경산시농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17시): 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 결성식 및 토론회
5.03	영천시농민회 교육 및 단합대회(10시, 호당미술아카데미)
5.04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제일작목반 사무실): IMF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대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투쟁본부 건설을 위한 대표자 회의(16시, 연합사무실)
5.07	도연맹 4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7시, 사무실): 도연맹 '농산물유통개혁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및 현장 활동가 토론회'(19시,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동아대 황연수 교수)
5.07~10 봄 농활	
5.10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5.14	도연맹성명서('정부와 국회는 추곡수매가 5%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5.15	IMF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대개혁을 위한 99 민중대회(14시, 대구 백화점 앞): 도연맹 임원·농협지역본부 간담회(12시)
5.16	의성 '제4회 가정의 달맞이 가족 어울림 한마당'(10시, 공설운동장, 300여명 참석)
5.19	대경법투본 정책위원회
5.20	전국농학연추
5.24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4시, 사무실): 도농학연추 실무회의(16시, 사무실)
5.25	IMF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대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투쟁본부운영위원회(15시):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20시, 사무실)
5.26	성명서('조국을 사랑하는 것도 죄인가, 한총련 탄압 즉각 중단하고 출범식 평화적 개최 보장하라!')
5.31	도연맹 상임정책위원회(18시, 사무실):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국장님 댁)
6.02	도연맹 운영위원회(13시, 사무실): 도농학연추 준비회의(16시, 사무실): 안동시농민회 예산면지회 농협접거농성(30여명):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6.03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
6.04	도연맹 집행위원회(14시, 사무실): 도농학연추회의(16시, 사무실)
6.06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6.07	구미시농민회 월례회의
6.08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장 참석)
6.09	상주시 농학연추회의
6.10	성명서('반농민적, 반개혁적,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입법추진 반대한다!'):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우곡면 도진리 회관): 대경공투본 운영위원회(11시, 연합강당)
6.12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대경지역 민족민주열사추모제 및 6월항쟁 계승 결의대회(14시, 대구백화점 앞)
6.17	영양군농민회 협동조합교육 및 야유회(10시, 일월면 칠성리, 60여명 참가, 강사: 정광훈 의장님): 서부총련 농활학교(15시, 명지대학교, 사무처장 참석)
6.18	상주시농민회 협동조합교육(20시, 농협시지부, 50여명 참가)
6.19	대경총련 농활학교(10시, 경북대학교, 사무처장 참석)
6.20	상주시 농학연추회의(20시)
6.21	고령군농민회 협동조합교육(20시 30분, 농협군지부, 40여명 참가, 강사: 장상환 교수): 영주시 농학연추회의 및 협동조합교육, 강사: 임극호 도정책실장
6.22	도연맹 상임정책위원회(14시, 사무실):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11시, 동대구역 민주노동농성장)
6.23	의성농민회 운영위원회: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협동조합 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6.24	영천시농민회 협동조합교육(20시 30분, 농협시지부, 강사: 장종익): 여름농활(7월 2일까지)
6.25	안동시농민회 협동조합교육(14시, 농협시지부, 강사: 최병상)
6.30	경산시농민회 협동조합교육(20시, 계림수련원, 강사: 장상환)
7.02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봉화, 영양, 구미, 영천, 성주, 상주) - 성명서('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경북지역 동시다발 시·군 농민대회'에 즈음하여)
7.03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청송, 고령, 안동, 김천)
7.04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의성)
7.05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7.06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 대회(영주): 대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11시, 연합, 의장 참석): 고령군농민회 비상 운영위원회: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사무실)
7.07	도연맹 비상 집행위원회(12시, 의성농민회): 경북도 농학연추 평가수련회(14시, 의성 옥산 오류초등학교, 8일까지):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7.08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경산시농민회 집행위원회
7.09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7.10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청송군농민회 운영위원회: 도연맹 성명서(‘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한 농민들을 강제연행하고 반농민적 졸속입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김대중 정권을 엄중히 규탄한다’)
7.11	울진군농민회 월례회
7.12	도연맹 5차 상임정책위원회(14시, 사무실)
7.13	대경공투본 협동조합 개혁 강연(19시, 연합강당, 강사: 천호준 감사):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청송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10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고석인 부의장, 정책실장 참석)
7.15	협동조합 개혁과 농가부채 해결 농정공약 이행추구를 위한 전농농성투쟁(-17일, 117명)
7.17	안동시농민회 국민회의 항의농성
7.19	대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11시): 대경공투본 대표자회의(14시)
7.21	도연맹 6차 상임정책위원회(14시, 사무실): 상주 농업말살정책 규탄대회(10시, 문화회관 앞, 14개 농민단체 공동주최)
7.23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대구·경북추진본부 대표자회의: 대경공투본 일일주점(경북대)
7.24	도연맹 7차 상임정책위원회(14시, 사무실)
7.26	도연맹 3차 운영위원회(16시,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7.29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7.30	전농 7기 2차년도 중앙위원회(14시, 기독교회관)
8.01	미·일 전쟁채동 분쇄 대구시민 결의대회(15시, 한일극장 앞, 사무처장 참석):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대구·경북 추진본부 결성식(19시, 경북대, 의장, 사무처장 참석)
8.06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수련회
8.09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전농 통일일꾼 수련회(14시, 계룡산 유스호스텔)
8.10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장규상 부의장 참석): 예천군농민회 단합대회

	(의장, 장규상 부의장, 사무처장 참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통일한마당(18시, 경북대): 안동지역 통일한마당(18시, 조흥은행 앞): 경산지역 통일한마당(-10일)
8.12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5시, 사무실)
8.14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서울대, -16일)
8.19	성주군농민회 단합대회(11시, 굴미기 앞 새다리 밭, 의장 참석)
8.20	경북농업경영인대회(19시, 영천, 의장 참석)
8.23	상주시농민회 교육 및 단합대회(경북농협연수원: 도연맹 1차 부채대책위원회(13시, 사무실): 대경범추본 기자회견, 집회(17시, 대구백화점 앞)
8.24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8.25	전국 회장단 수련회(-26일, 철원)
8.26	영덕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김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8.27	상주 시민운동공동대책위 발기인대회
8.30~31	도연맹 농민일꾼학교(농협중앙회 경북연수원)
9.01	대경공투본 대표자회의(14시, 연합)
9.03	대경범추본 집행위원회
9.07	전국 농학연추(20시, 충북대)
9.08	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자인면 장터)
9.09	봉화군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춘양면 장터)
9.10	의성군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농민단체 화합대회장): 구미시농민회교육
9.11	상주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시내, 시장)
9.13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9.14	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하양읍 장터)
9.17	성주군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읍내 장터): 예천군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읍내장터):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시내 장터): 상주 가을농활(경북대, 220명)
9.18	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자인면 장터):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신령면 금호읍 장터)
9.19	정광훈 의장님 회갑연(조선대, 12명 참석)
9.21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도연맹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8시)
9.29	농업인회관 농민단체 등반대회(의장, 사무처장 참석)
10.02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4시)
10.04	4차 운영위·3차 부채대책위 연석회의(19시, 의성): 안동 예산 ‘수해피해 보상요구’ 대회

10.05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0.06	성명서('팔로만 농민이 주인! 농민의 피 빨아먹는 농협 임·직원의 실비 및 임금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협중앙회 임금인상 규탄 농협지역본부 항의투쟁(13시, 농협지역본부, 20여명)
10.07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0.09	민족자주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결의대회(13시, 대구백화점 앞)
10.11	대경연합 중앙위원회
10.12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 철회를 위한 노동자·농민·시민 결의대회(13시 30분, 국민회의 시지부 앞, 의장 참석):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 철회를 위한 노동자·농민·시민 경북북부지역 결의대회(영주)
10.13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원회
10.14	전농 상근실무자 수련회(대천해수욕장, -15일, 5명 참석)
10.16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한마당(16시, 대구백화점 앞)
10.22	성주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0.25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0.27	대경연합 민족간부학교 1강(19시, 대경연합 강당):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0.30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시도민 결의대회(14시, 대구백화점 앞)
11.02	농가부채 해결·농축산물값 보장 촉구 성주군농민대회(11시, 성주우시장, 200여명): WTO 뉴라운드 대구·경북지역 설명회 규탄투쟁(14시, 상공회의소, 30여명)
11.03	대경연합 민족간부학교 2강(4, 5강(11.20~21 수련회))
11.04	도연맹 9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9시, 의성사무실)
11.05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1.08	전농 총무일꾼 수련회(속리산 유스타운, 43명 참가)
11.10	대경연합 민족간부학교(3강)
11.11	도연맹 성명서('농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김대중 정권은 대선공약 이행하고 농업회생에 나서라!'): 고령군농민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19시, 사무실)
11.12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14	전국민중대회(20명 참가)
11.15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16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18	농가부채 완전해결·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영천·신령·청풍 농민대회(11시, 신령면, 200여명): 전농 협동조합 교육(충북 농업인회관, 21명

11.20	대경연합 민족간부학교 수련회(4-5강, -21일, 경북농업인회관)
11.22	농가부채 완전해결·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영천시농민대회(11시, 영천시장, 200여명):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1.23	청송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24	도연맹 10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故 임태주 영덕회장 추모모임 및 도연맹·영덕군농민회 간담회(16시, 남정면)
11.26	농가부채 완전해결·농축산물 가격보장 상주 서부지역 농민대회(10시, 모서면시장, 600여명): 농가부채 완전해결·농축산물 가격보장 상주 북부지역 농민대회(10시, 함창읍 기차역광장, 700여명):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구미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1.27	국가보안법 철폐 2차 범시도민 행동의 날(14시, 대구백화점 앞): 영양군농민회 차량 선전전(~28일)
11.29	농가부채 완전해결·수해피해 보상을 위한 안동농민대회(10시, 예안면 월곡농협 앞, 500여명): 영양군농민회 선전전(영양장터)
11.30	농가부채 완전해결·WTO 추가개방 반대 경산농민대회(11시, 경산시장, 500여명): 국가보안법 철폐 천막농성(동대구역 앞, 15명 참가)
12.01	도연맹·전교조 경북지부 간담회(12시, 안동): 도연맹 5차 운영위원회(14시, 안동농민회 사무실)
12.02	의성군농민회 행동의 날(차량시위, 트랙터 1대, 차량 50대, 70여명): 구미시농민회 선전전(선산읍내, 7명, 차량방송, 선전전):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03	성주군농민회 정기총회(18시, 사무실, 노병식 회장, 이재동 사무국장 참석): 영천 금호·대창농민대회(11시, 금호읍 장터)
12.04	청송군농민회 운영위원회: 고령군농민회 선전전
12.05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2.07	경북도 농정특별세미나(10시, 경북대 중앙회의실, 의장 토론자로 참석): 영천군농민회 차량선전전: 구미시농민회 선전전: 봉화군농민회 선전전: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10	전국농민대회, 2차 민중대회(13시, 서울역)
12.14	고령군농민회 사무실 개소식(11시, 농업경영인 회관): 성주군농민회 운영위원회: 농가부채 완전해결·구속자 석방·농민운동 탄압중지 국회의원 당사 접거농성(청송, 영덕, 상주, 구미, 김천, 의성, 성주, 고령, 경산)
12.15	농가부채 완전해결·구속자 석방·농민운동 탄압중지 국회의원 당사 접거농성 항의방문(영주, 영천):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16	도연맹 성명서('더 이상은 못 믿겠다.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김대중 정권은 영터리 부채대책 당장 철회하고 획기적인 농가부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2.17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세계인권선언 51주년 기념 시와 노래의 밤(19시, 경북대 대강당): 봉화군농민회 정기총회(회장: 차동철, 부회장: 김광일, 권성기): 2차 전국 농민대표자대회(173명 참가)
12.20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21	도연맹 성명서('농가부채 해결하고 구속·강제연행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12.23	농가부채 완전해결·농민운동 탄압중지·전농 의장 석방 권정달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안동, 60여명)
12.29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및 송년회(안동)
◆ 2000년 활동	
1.07	의성군농민회 정기총회(10시, 축협회의실, 70여명 참석, 회장: 장규상, 부회장: 김재걸, 김광원, 이재국, 사무국장: 김학천): 도연맹 성명서('농업파탄 책임자 김성훈 장관 즉시 물러나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하라!'): 영주시농민회 평은면지회 창립
1.10	대의원대회 준비소위원회(12시, 도연맹)
1.11	도연맹 성명서('우리 축산업을 말살하고 수입농산물 소비를 획책하는 김성훈 장관 퇴진하고 농림부 해체하라!'): 시·군 성명서(영천, 상주, 성주, 의성, 안동)
1.12	안동시농민회 정기총회(11시, 농협회의실, 회장: 전중렬, 부회장: 하용락, 사무국장: 장휘수, 정책실장: 박정민)
1.13	도연맹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1시, 사무실): 영천시농민회 일일주점: 축협노조 '수입쇠고기 판촉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14, 대구백화점 앞, 의장 참석)
1.14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7	2차 대의원대회 준비소위원회(11시, 사무실): 감사: 안동시농민회 일일 찾집
1.18	고령군농민회 정기총회
1.19	도연맹 9기 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11시, 경북농업인회관 대강당)
1.20	도연맹 9기 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11시, 경북농업인회관, 122명 참석 (대의원 101명))
1.24	상주시농민회 정기총회(13시, 농협시지부, 회장: 황인석, 사무국장: 조원희):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전농 상임정책위원회
1.26	도연맹 1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7시, 사무실): 의성군 옥산면·점곡면 협동조합교육(13시, 옥산면사무실, 30여명, 강사: 김용순): 의성군농민회 집행위원회

1.27	경산시농민회 정기총회(11시, 남산면농협, 회장: 백철재, 사무국장: 이상규): 예천군농민회 수입쇠고기 판촉 농림부 규탄 선전전(10시, 35명)
1.28	영천시농민회 정기총회(10시, 축협회의실, 회장: 이주영, 사무국장: 이주영): 구미시농민회 정기총회(19시, 회장: 김철근, 사무국장: 최창훈): 청송군농민회 대중강연회(13시, 군민회관, 강사: 엄재열, 이호철, 500여명 참가)
2.01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고 김양무 선생 살인주범 김대중 정권 규탄과 통일애국 인사 탄압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이적규정 철폐 및 고 김양무 선생 평양방북 보장을 위한 대구시민 촉구대회(15시, 국민회의)
2.02	전농 중앙상무위·상집위 연석회의
2.07	도연맹 2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9시, 의성사무실)
2.10	도연맹 1차 사무처·정책실 회의: 영양군농민회 정기총회: 대경연합 단 배식
2.11	도연맹 1차 운영위원회(12시, 도연맹 사무실):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2.12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선생 추도 및 반통일 살인정권 김대중 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이적규정 철폐 및 평양 방북보장 촉구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대회(15시, 대구백화점 앞)
2.15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경북대 새로배움터 강연(사무처장 참석)
2.16	의성군농민회 교육(12시, 옥산사무실)
2.17	전농 대의원대회(13시, 대전시민회관)
2.20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13시, 동국대 중강당, 5명 참가)
2.21~22	선전의 날(경북대 농대, 상근실무자 8명, 현수막 260개 제작)
2.25	도연맹 농민일꾼학교(13시, 농업인회관, 50여명 참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17시, 영남의료원 강당, 김실경 의장 참석): '3·1절 반외세 정신계승 민족자주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준비를 위한 단체인담회(11시)
2.26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전농 상임집행위원회
2.28	의성군 옥산면지의 사무실 준공식(10시): 청송군농민회 대중강연회(400여명 참가)
2.29	전농 조국통일위원회(15시)
3.01	영주시농민회 단합대회(10시, 사무실 앞, 60여명 참가): 3·1절 반외세정신계승 민족자주실현을 위한 결의대회(13시, 대구백화점 앞, 상근 실무자 참석)
3.02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3.04	전농 협동조합 개혁위원회